

김경수도지사, 정부에 '해외입국격리면제자정보제공' 건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오후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사천시의 경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해외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면제자 2명으로부터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다보니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의 정보가 지방정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의 건의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입국자가 들어와 있는지, 자가격리 면제를 받았더라도 최소한 2주간 전화문진 등 능동감시라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해 달라"는 차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중요사업장 목적으로 인한 2주 이내 해외출장에 대해 신속감시를 통한 음성판정 시 해외입국자에 일괄 적용되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도 완화된다.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김 지사는 "도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역학조사, 현장점검을 포함한 조기에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정보 제공을 비롯해 인접한 시·도, 시·군 간 정보공유와 대책점검 등 공동대응 체계 정비, 마스크업과 같은 백신 접종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 백신 접종 위탁병원 간 대기자 선점과 확정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쇼로 인한 신속한 대기점중 시행을 원활히 하자는 차원이다. 김 지사는 중대본에 이어진 경남 재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방역의 기본과 원칙을 재강조하며 도와 18개 시군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남은 최근 일주일(4.25.~5.1.) 사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전예방, 확진자 조기 발견, 감염 확산 조기 차단' 등을 도민과 전 공직자들에게 호소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에 이어진 경남 재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방역의 기본과 원칙을 재강조하며 도와 18개 시군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남은 최근 일주일(4.25.~5.1.) 사

【칼럼】4차산업 시대 대한민국 학생들의 미래

2018년 2월 강남대학교에서 "4차 산업 시대 우리의 역할"에 대해 용인시민들과 포럼에 참석하여 주제를 발표했다. 포럼이 끝난 후 방청객 중 한 분이 4차산업 시대, 무슨 뚱딴지같은 말을 하느냐고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코로나 비대면(비대면) 시대로 4차산업 시대가 성큼 다가옴을 느낀다.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지구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합플랫폼이다. IOT(사물인터넷), IOE(만물 인터넷)로 사회 모든 분야가 서로 융합 접목되어 있다. 2030년이면 초지능 사회로 IOT와 AI,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가 된다.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2035년이면 자율주행차와 시속 1,300km로 달리는 하이퍼루프(초고속 진공 튜브 캡슐 열차)가 부산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3D프린팅을 사용하여 인공장기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집도 만들 수 있다. 바이오 기술로 유전자로 병을 치료하고 예방한다. 농업, 임업, 축산업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뛰어 넘어 만물 인터넷 시대(사람의 조작이 개입되지 않고 사물끼리 알아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교통 및 운송에 도입하면 자율주행차의 운행 가능하고 사람 대신 드론으로 운송할 수 있다.)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곳곳에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카메라를 부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어디서 불량품이 발생하였는지, 이상 징후가 보이는 설비는 어떤 것인지 등을 인공지능이 파악한다.

양자컴퓨터가 실용화되면 지금의 슈퍼컴퓨터가 150년에 걸쳐 계산해야 할 것을 4분 만에 풀낼 수 있다. 또한, 순간이동 같은 공상과학 소재를 현실에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지금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를 가진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고, 현재 반도체보다 몇 배나 빠른 반도체 생산이 가능해진다. 불과 15년 안에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학교현장을 살펴보자. 아직도 객관식으로 출을 세워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한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하나만을 가지고 검색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눈앞에 사라질 직업(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에 목매어 있다. 미래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4차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협업이나 봉사활동, 놀이를 통한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독서 활동과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경험이나, 체험 등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갖추어야 한다. 4차산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교수/김원호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광역도부문 7년 연속 '우수' 도(道) 선정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 선정 8건으로 정성 부문에서 9개 광역도 중 2위에 해당하는 '우수'성적을 거뒀다. 이로써 도는 2015년부터 7년 연속으로 광역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성적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4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0년 실적을 대상으로 당초 116개 지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총 104개 평가지표로 변경해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26개 지표에 대한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정성평가에

서 2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으로 위기상황 공동대응 및 상권특화 ▲테크노밸리 조성 기반 마련 ▲적극적인 혁신시제품 제안 공모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공공장 생활폐기물 완벽처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부정보조금 예방-점검-환수 3중 관리 ▲건설통계분석 활용으로 폐이퍼컴퓨터 근절 등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사례의 국민평가단 평가에서도 도의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도입, K-방역의 기틀 마련'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한편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78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전년 대비 2.8% 하락한 84.6%(66개)를 달성했다.



앞서 도는 2015년 3위, 2016년 1위, 2017년 1위, 2018년 3위, 2019년 정량 1위, 지난해도 정량 3위, 정성 3위를 기록하는 등 올해까지 7년 연속 '우수' 도(道)로 선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정성평가 선정률이 향상된 것은 도와 시군의 우수사례 발굴 과정을 개선

진도 신비의 바닷길 온라인 축제 대성공...누적조회수 12만회 기록

3일 동안 진도군이 개최한 2021 진도 신비의 바닷길 온라인 축제 누적 조회 수가 12만회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올해 42회째를 맞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의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관광, 문화예술, 농수특산물 등 진도군을 널리 홍보하면서 축제를 뜨겁게 달궜다. 신비의 바닷길 현장 동영상 드론촬영, 뽕할머니 제례와 진도북놀이 등 보배섬 진도군이 간직한 전통 문화예술 공연 중계 등을 실시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동시 시청자 4,821명, 댓글 등 누적채팅 2,896건, 누적 조회수 12만회 기록을 남기며, 온라인 축제가 성공을 거두었다. 신비의 바닷길이 갈라지는 생생한 장면을 라이브로 송출해 큰 호응

을 얻으며,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축제 기간 매일 송출됐으며, 최대 4,000여명이 접속해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갈라진 현상 등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예술공연 등을 즐겼다. 이밖에 '나도 와씨라~신비의 바닷길 축제 추억 소환 인증샷', '도전! 온라인 퀴즈 열정', '진도출신 가수 송가인씨 노래 따라 부르기' 등의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관계자는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는데 큰 경험과 노하우를 얻었다"며 "처음 시도한 온라인 축제인 만큼 사후 평가에도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의 축제들을 더 알차게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입체적 축제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역량과 유튜브,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배섬 진도 관광의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미래형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양호/기자

인천시 iH공사, 검단신도시 내 청년세대를 위한 미래형 혁신단지 '위라밸 밸리지' 특화구역 조성 추진

iH공사는 29일 인천시의회 별관에서 개최된 정책소통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및 뉴노멀시대 청년세대를 위한 미래도시 트렌드 및 특화방향'을 소개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소통 토론회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청연구네트워크가 26일부터 30일까지 주최하는 행사로서, 4일차인 29일에는 iH공사가 토론회를 주관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인천연구위원 이왕기 박사를 좌장으로 하여 인천시 윤용규 도시개발과장, 청운대 장동민 교수, 인천대 신은기 교수, 중앙대 이윤용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 날 공사는 검단신도시 위라밸빌리지(Work and Life Balance Village)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위라밸빌리지는 일과 삶의 균형에 초점이 맞춰진 특화구역으로, 검단신도시 서측 특별계획구역 42만여㎡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단지, 스마트워크센터, 청년문화공간, 통합보육센터, e-에듀 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위라밸빌리지 조성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직주근접의 경제적 공동주택단지 조성', '다양한 여가와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다기능화/복합화를 통한 변화가능한 환경 조성', '스마트 기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및 운영관리를 통한 다운메니지먼트 시스템 도입'을 설정하여 신도시 최초로 청년세대를 위한 미래주거의 표본을 선보일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 특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삶의 패턴, 1~2인 가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소형 주택을 가격 부담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드론 서비스 도입 방안, 에너지 절감형 공동주택 특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정책소통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및 뉴노멀시대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도시 트렌드 및 특화방향으로서 검단 신도시 위라밸빌리지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세대



를 위한 미래형 혁신단지인 위라밸 빌리지 조성을 통해 검단신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할 것이며, 향후에도 시대의 변화 및 각 세대의 특



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중남/기자

양기대 국회의원, '아동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능도 확대하여 기존에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것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순희/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최

광주시·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등 41건 처리 등

광주광역시의회는 4월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월 14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0건, 동의안 3건, 의견정취의 건 2건, 건의안 1건, 보고안 1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안건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정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정취의 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날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광주복지연구원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장연주 의원 '문화, 예술의 도시 광주'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수정 의원 '광주시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적극행정을 기대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의결했다.

김용집 의장은 "우리 의회에 제출된 1회 추경예산안이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심의함으로써 이번 임시회가 오랜 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인근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허가될 경우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목적 외 용도 사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적 외 사용 허가 전,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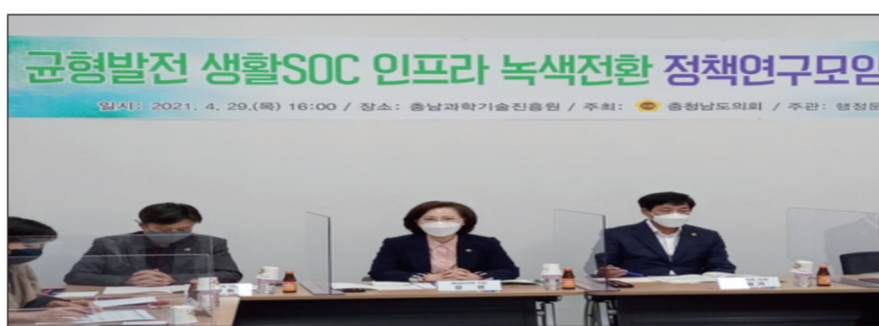
김민기 의원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다른 목적 사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할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밑그림 그린다'



충남도의회가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정책' 발굴 연구에 돌입했다.

도의회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발굴과 가치기반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연(전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정병기(전안3·더불어민주당)·유병국(전안10·더불어민주당)·이공휘(전안4·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남 및 국회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회원들은 이날 진중헌 공주대 교수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과 담

론'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 관계자는 연구모임 결과물이 향후 그린뉴딜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7차례에 걸쳐 연구활동과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연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 국가시책화로 실현할 수 있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충남형 정책을 발굴해내겠다"면서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토대 마련

완주군내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선 지역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의식 의원(산내·이서)은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은 담수수계법에 따른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유 의원은 지난달 3월 군정질문에서 "삼례에는 환경기초시설 9군데 중 4군데가 밀집되어 있으며, 완주군 전체 처리 가능한 시설 용량 6250톤 중 삼례지역 내 시설 용량이 5826톤으로 전체 처리용량의 93% 차지하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삼례에 최초 환경기초 시설이 들어선 1983년 이래

로 28년의 기간 중단 8년간 18억원 지원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완주군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끌어안고, 그 피해를 감내하며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필요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외받았던 지역이 살기 좋고 복지가 탄탄한 마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의 등을 수정해 의결되었으며, 5월 4일 열리는 제298회 완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김승일/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정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 부: 내선 (112) 문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 02) 2612-2959
팩 스 :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정부, 현 방역단계 및 5인모임 금지 3주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아울러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고 그만큼 감염 확산 위험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 1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방역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선제 검사,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중점 관리·감독,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축소 등

3가지 방역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홍 총리대행은 경북 12개군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시범적용을 거론, "1주일간 인구 40만명 중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며 "시범적용 기간을 3주간 연장하고, 다른 지사

체에서 유사 요청이 있을 경우 엄중히 평가해 요건에 해당되면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총리대행은 "다음 3주간 반드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안양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유망청년창업기업(Blue100) 육성

안양시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 발굴과 집중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기업 100개 집중육성' 시책의 일환 'Blue100 기술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적·사회적·혁신적 성과와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7년 이하의 20개사를 선발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자금으로 25백만원(자부담 10%) 지원되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임차비, 시제품 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안양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유망청년창업기업(Blue100) 육성

안양에 소재한 청년창업기업이 아니더라도 안양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이면 신청 가능하고, 최종 사업과제완료시, 'Blue100(유망창업기업)인증'도 부여받게 된다. 최태호 시장은 "청년초기기업은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정부에 있더라도, 사실상 다른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움이 있었다"며, "Blue100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안양에서 개발된 기술로 글로벌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5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아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종규/기자



달서구, 민·관협력으로 장애인 세심하게 보살펴!

대구 달서구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한국장애인MICE협회(이사장 심만섭), 영남장애인협회(회장 이기봉), 삼익신협(이사장 박종식)에서 장애인 세대에 선물 꾸러미 전달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 달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장애인MICE협회에서 장애인 20세대에 (사)한국장애인MICE협회 자원봉사자 5명이 장애인 가정 20세대를 방문하여 스투기, 금전수 화분 등 반려식물을 전달하였다.

영남장애인협회에서는 라면,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자원 봉사자 20명이 장애

인 가정 1,000세대에 직접 전달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삼익신협에서는 라면 100박스(200만원 상당)를 영남장애인협회중앙회(회장 이기봉)에 후원하기도 하였다.

이태훈 구청장은 "장애인의 날 뿐만 아니라 늘 장애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웃과의 만남이 제한된 장애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당진시, 벼 조생종 '빠르미'이앙·신기술 현장 시연

생육기간 짧아 이기작 가능, 농가소득 증대 기대

당진시는 지난 30일 당진해나루 쌀조합공동사업법원에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하고 기술원에서 개발한 조생종 벼 품종인 '빠르미'의 이앙 및 신기술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어기구 국회의원,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벼 신품종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설명과 신기술 이앙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빠르미'는 2018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극조생종 품종으로 생육기간이 70일에서 90일로 국내 품종 가운데 가장 짧으며, 4월 말에 모를 심고 6월 중순 이삭이 나오면 7월 말에 수확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수확량은 10a당 500kg가량으로 충남의 대표 품종인 삼광벼(10a당 569kg) 보다 적지만 국내 최초로 동일한 논에서 벼



를 두 번 재배하는 이기작을 성공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빠르미 재배를 통해 벼 생육 기간이 단축

되면서 가능해진 이기작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본격 활동 개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경진)」가 5. 3일에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참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소장 최인혜)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용역 추진개요 및 주요 과업 보고, 주제 관련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의원들은 개별 법령을 근거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위탁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도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경진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위탁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사전에 검증해 보고자 연구모임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입법의회로서의 기능강화와 연구하는 시의회 구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익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회」에는 김경진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 김연식, 김진규, 김태열, 박종대, 유재구, 유재동 의원 등 8명으로 결성되었으며, 올해 11월까지 의정 연구 및 정책대안 발굴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선수/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강북혁신교육지구 민간위원들과 간담회 실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정식 부의장, 유인애·조윤섭·김미임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강북혁신교육지구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역 내 형성된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정영석 사무총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과 강북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민간대표, 실행추진단 공동

단장 민간대표, 학부모분과장, 지역교육분과장, 실행추진단 사무국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행복특별시 서울시민선언'에 관한 내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아이들의 놀이와 쉼 권리, 환경, 자치와 참여'에 관한 주제로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유인애 의원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의원들도 힘을 보태겠다"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근로자의 날 기념 11명 표창 격려

백군기 용인시장은 30일 시장실에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 등에 기여한 근로자 1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업에 충실하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한국노총 용인시지부와 용인민주노동자연대회의, 용인상공회의소, 각 읍·면 기업인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심리상담사 윤진광씨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상담과 교육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강대희씨는 관내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주민 안전·보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시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시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근로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최근수/기자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는 또 다른 가족 성북구

가족해체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서울 성북구가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공영장례란 장례의식 없이 시신이 처리되지 않도록 공공이 무연고 저소득주민에게 최소한 장례의식을 직접제공하거나 이러한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이다.대상은 장제급여를 지원받는 저소득주민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미성년자와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이다. 최근 가족해체,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사망자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성북구는 2020년부터 총12건의 저소득주민 공영장례를 지원했다.아울러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망자와 삶의 동반자 관계에 있었던 개인이

나 단체를 연고자나 장례주관자로 지정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가족대신 장례도 추진하고 있다.최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A어르신 의 경우 연고자가 없어 무연고장례대상이었으나 오랫동안 수양딸로 관계를 맺어오던 B씨가 연고자 지정신청을 하여 연고자로서 장례를 치를 사례가 있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탄생의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행정의 역할이 더욱 세심해지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형편,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 과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성원/기자

서울특별시, 주민 셀프활용 '한옥유지관리 매뉴얼' 배포...은평구는 고소작업차 무료 지원

수선정보 및 기술자부족, 비용부담 등 어려움 겪는 한옥주민 지원하고 하자 피해 예방

서울특별시가 한옥 주민들이 한옥 관리, 수선, 하자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한옥 유지관리 매뉴얼' 책자를 만든다. 은평한옥마을, 북촌, 경복궁 서측 등 서울 전역의 등록한옥 약 1,100가구 주민들에게 9월 중 우선 배포한다.

수선시범 동영상도 제작한다. 매뉴얼 책자와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붕누수, 목재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한옥을 무상 수리(350만원 이내)해주는 '한옥 소규모 수선사업'은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 이에 발맞춰 은평구는 은평한옥마을 내 2층 한옥 수리에 필요한 사다리차 형태의 고소작업차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유지관리가 까다롭고 특수한 한옥의 특성 때문에 수선 정보 및 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한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수 지연이나 건물 방치로 인해 하자 범위가 커지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강화되는 지원내용은 크게 한옥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옥 소규모 수선사업 ▲고소작업 장비 지원사업 세 가지다.

첫째, '한옥 유지관리 매뉴얼'은 한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안내서다. 부분별 한옥 수선법, 하자예방 등 실제 활용성이 높은 내용들로 구성하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다양 수록한다.

매뉴얼과 연계해 한옥 관리·수리법에 대한 동영상도 만든다. 수리 빈도가 높은 미장 작업, 목재 질 관리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민이 스스로 한옥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한다. 매뉴얼과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한옥 소규모 수선사업'은 시가 2017년부터 지붕 누수, 목재 파손, 미장 탈락 등 소규모 한옥 수선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5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수리해준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194건의 한옥 수선을 했다.

셋째, '고소작업 장비 지원사업'



은 2층 한옥을 수리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단층 한옥이 아닌 2층짜리 도심형 한옥이 많은 은평한옥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2층의 벽체, 목재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사다리차 형태의 고소작업용 차량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

은평한옥마을에는 북촌 등에 분포한 일반적인 단층 한옥과 달리 짧은 처마와 2층 구조를 지닌 한옥이 많다. 2층 한옥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빗물에 의한 벽체 훼손이 잦지만, 이를 주민이 직접 수선하기엔 위험할 뿐 아니라 별도의 작업 비용을 들여야 했다. 때문에 수리를

미뤄 미관·기능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 무대리는 "한옥의 특수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한옥 건축문화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은평한옥마을의 유지관리를 지원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동구, 한부모가족을 위한 종합선물지도 확인하세요~

강동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안내 리플릿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지원과 양육지원을 필두로 각종 요금 감면과 문화 서비스 지원 등의 기존 지원정책과 5월부터 확대되는 추가아동양육비와 생계급여 가구 아동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으나 5월부터는 만 24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월 5만 원 지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생계급여 대상 가구에는 지원하지 않던 아동양육비를 한부모가족에는 월 1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에는 월 25만 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설 명절 위문금', '월동

대책비' 등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리플릿은 5월부터 강동구청 여성가족과와 동주민센터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모든 대상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인천시 동구 아카데미, 2021 '명사특강'방송

5월 4일부터 동구청 유튜브 통해 실시간 무료 강연

인천 동구는 오는 4일부터 11일, 1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2021 동구 아카데미「명사 특강」을 방송한다.

'코로나 일상 슬기로운 집콕 생활'로 기획된 이번 특강은 '소통의 부재 시대,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대화가 통한다'를 주제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가족·노인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 IQ210의 실재한 천재로 잘 알려진 김용우 교수가 출연해 대한민국 상위 1% 우등생의 비법 메타인지, 가족 소통을 위한 3가지 기술, 평범함 속에 행복을 찾다를 강연한다.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는 「명사 특강」은 동구청 아카데미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환 동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닥뜨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강연을 구성해 동구 주민들이 평생 교육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본 강연 아카데미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강연 프로그램으로써, 각 강연 동영상에 따라 사전에 URL코드를 공지해드립니다."

2021 동구 아카데미 「명사특강」 "슬기로운 집콕 생활"

소통의 부재 시대,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대화가 통한다.

YouTube 채널 "인천광역시 동구청 공식채널"에 실시간 방송합니다.

- ▶ 장소 스마트폰만 있다면 그 어디든
- ▶ 기간 2021.05.04~05.18

<p>김경일 심리학자</p> <p>상위1% 우등생의 비법 메타인지 "메타인지를 알면 지혜가 보인다" 05.04(화) 오후 2시</p>	<p>이호선 가족상담전문가</p> <p>우리가족 행복 찾기 프로젝트! 가족의 소통을 위한 3가지 기술 05.11(화) 오후 2시</p>	<p>김용우 대학교수</p> <p>"실재한 천재" 아닌 "영재한 천재" IQ210의 천재 광범한 속의 행복을 찾다. 05.18(화) 오후 2시</p>
--	---	---

YouTube 본/방/사/수 ※방송시간 및 다시보기 정보 주/주/관: 인천광역시 동구청

관악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는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전자신고로~

관악구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신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귀속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제청 모뎀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 약 3만 3,000명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모뎀채움신고대상자는 ARS 전화 한통과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5월 한 달간 구청 본관 2층 관악갤러리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 비대면 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고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통신망 구축 등 관악세무서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납세자와 세무사, 과장님들께 고맙습니다!

신고기간	2021. 5. 1.(목) - 5. 31.(화)
신고방법	전자 신고, PC 홈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홈택스 신고
납부기한	2021. 5. 31.(화)까지
납부방법	계좌입금, 오토계좌입금(연간 65세 이상, 장애인), 현금, OOO세무구청 지정납부은행계좌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방문민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창구직원과 납세자가 가깝막고 듀얼 모니터를 설치했으며, 도움창구 운영 기간 동안 방문자 예방수칙 준수 안내 및 주기적인 방역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그밖에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세무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인천시 서구, 서로e음이 총 4,403명에게 감사의 행운을 드립니다!

사용 1조 원 달성 기념 '서로e음 1·2·3 이벤트' 개최

인천 서구가 지역화폐 서로e음의 사용액 1조 원 달성과 발행 2주년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서구는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서로e음 1조 원 달성과 관련한 지역 매니저, 민관운영위원, 명예홍보대사 등과 표창 간담회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서구청 유튜브 채널인 '서구tv'를 통해 경품 추첨 이벤트를 생중계한다.

특히 오후 7시부터 생중계로 진행되는 경품 추첨 이벤트에선 서로e음 사용자 4,403명에게 총 5,0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경품 추첨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로e음으로 서구 내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사용자이며, 경품권은 5만 원당 1장씩 자동 응모가 된다.

또한,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행액 1조 원을 달성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번 행사는 1조 원이라는 놀라운 기록의 가장 큰 원동력인 서구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행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그동안 정말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서로e음이 전에 없던 기록과 수상도 이뤄내고, 구민과 소상공인에게 두루 사랑받는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많은 구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이벤트가 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최대한 살려 '이음'의 가치를 더 끈끈히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1·2·3 이벤트

서로e음 1·2·3 실시간 라이브 추첨 이벤트

사용 1조원 x 발행 2주년 x 경품 박-3(소리)

서구TV 구독은 필수!

구독 좋아요

YouTube | 서로e음

부평구 '일 드림(dream) 채용행사'에 구직자 80여 명 참여

부평구가 주민들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한 '일 드림(dream) 채용행사'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부평산업단지 내 부평테크시티에서 실시한 채용행사에 구직을 원하는 주민 80여 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및 대면 방식을 혼용했다.

특히 구는 사전예약제로 시간대를 나눠 참가자들의 접촉을 최소화했으며, 오전과 오후 행사 종료 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행사장 전체

를 방역했다. 행사에는 총 9개의 구인 업체가 참여해 생산직·물류·설치기사 등 다양한 직종을 구인했다. 구 관계자는 "아쉽게도 이번엔 참여하지 못한 업체 및 구직자들은 다음 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도 채용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용산구, '똑똑 살피미' 앱 제작·배포

1인 가구 급증으로 고립사(고독사) 문제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정데이터상 나타난 사망자 관련 자료 중 '고립사 확실(혼자 살고 집에서 사망한 후 3일 이후 발견)'건수가 52건에 달했다.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 용산구가 '용산 똑똑 살피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제작·배포했다.

홀몸 어르신, 1인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앱에서 친인척, 친구, 관할 사회복지사 등 구조자(보호자) 번호를 등록, 일정시간(24~72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으면 구조자에게 이를 알리는 문자가 간다. 구조자 번호를 여러 개 등록할 수도 있다.

문자 내용은 보낸 이의 이름과 주소, 평소 앓고 있던 질병, 謔시간 동안 휴대폰 미사용'문구 등이다. 구조자가 한눈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는다.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고위험군 300명에게는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직접 앱 설치를 안내한다.

구는 지난해 경남 합천군으로부터 '경남 안심서비스' 앱 소스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구 실정에 맞게 코드를 수정, 앱 시범운영(오류 수정, 보안성 검토)을 해 왔으며 이달 정식버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했다.

구는 똑똑 살피미 앱 외에도 유선 안부확인, 방문 모니터링,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플러그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1인 취약가구 안전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간단한 앱 설치와 정보 입력만으로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며 "구민 안전을 위해 1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은평구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빈틈없는 CCTV 모니터링으로 범행 현장 포착

CCTV모니터링으로 교통사고 운전자 바뀌치기 범행현장 포착

은평구는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방범용CCTV 관제요원의 실시간 화상 추적을 통해 지난 4월 15일, 교통사고 운전자 바뀌치기 범행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목요일 새벽 2시경 경찰서 112상황실로 "은평구 신사동 297번지 앞 노상에서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후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자신이 운전자라며 나타난 차주에게 음주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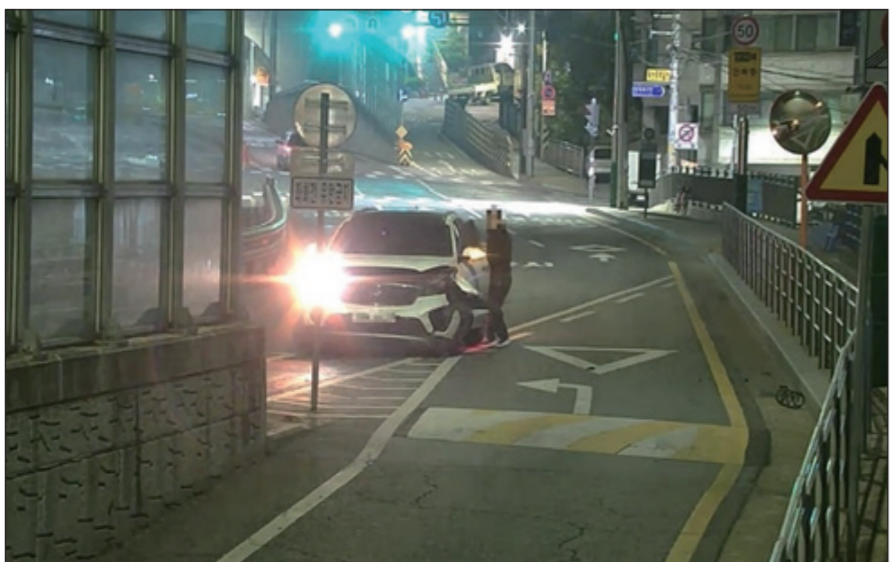
하지만 은평구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사고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사고현장으로 다른 인물이 나타나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게 즉시 알렸다.

이에 서부경찰서 사고조사반은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인정하였고 실제 운전자에게 자진 출석토록 하고, 차주는 진술서 작성 후 귀가 조치했다.

이영우 서울서부경찰서장은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구청과 경찰서의 수사 공조체계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중요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의 뜻으로 이용준 관제요원에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은 구청과 경찰이 따로 없으며, 지속적인 CCTV 설치와 중단없는 관제로 범행을 예방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를 지원하여 안전한 은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광진구, 지역 문화예술인을 전문인력으로 양성!

5월 14일까지 예술강사로 활동할 문화예술인 총 25명 모집

2021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 및 예술강사 모집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인의 양성과 수요기관-양성강사 매칭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지원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연계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문화교육을 실현하고자 광진구가 주최하고 광진문화원이 주관하는 지역 문화사업입니다.

모집대상	교육대상	참여기관 유형(예시)
모집대상: 예술강사 5명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어린이집, 유아원 등 유아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 장애인 장애인협회, 특수학교, 돌봄센터 등

모집기간 2021. 4. 26(월) ~ 5. 14(금) 18:00까지

신청 및 접수 광진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www.kjcc.or.kr E-mail: kwangjin21@kccf.or.kr

문의 광진문화원 02)447-0244
*자세한 내용은 광진문화원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한강과 남산을 한 눈에! 용양봉저정 공원 자연마당 30일 주민 개방



동작구가 도심 속 자연 숲 개념의 '용양봉저정 공원 자연마당' 조성을 완료하고 30일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한강대교 남단의 용양봉저정 공원은 관내 대표 문화재인 용양봉저정에서 약 200m 올라가면 만날 수 있으며, 정상에서 한강과 여의도, 남산까지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조망을 자랑한다.

구는 민선6기부터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하나로 묶은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승화"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양봉저정 공원 조성은 핵심 단위사업 중 하나이다.

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인 자연마당은 몇 년 전까지 방치된 야산이나 다음없던 공원 주변을 도심 속 자연 숲으로 재탄생시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정상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데크로드) 설치 ▲하늘전망대크 포토존 조성 ▲토양과 계절 여건을 고려한 나무 및 특색 있는 초화류 등을 심어 식생을 보완했다.

더불어,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자전거놀이터' ▲LED 조명을 이용한 '신비로운 알루미아트리'

▲오르막길을 오를수록 발자국 사이가 가까워지는 '발자국 고보조명' ▲그림자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형 시설도 마련했다.

구는 주민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30일 오후 2시 이창우 동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개방식을 열고, 주민참여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용봉이 나르샤"를 다음달 8일까지 개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개방식은 식전행사와 내빈 인사말을 생략하고, 방역 소독 및 참석자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치를 계획이다.

한편, 구는 내년까지 공원 조성 2단계 사업인 '전망대 설치', 용양봉저정의 역사적 가치를 테마로 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관광명승화 세부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예전에, 우연히 주민의 권유로 용양봉저정 공원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곳에서 바라본 야경은 제가 본 서울시 어느 곳보다도 훌륭했다."고 밝히며, "많은 시민들께서 가족·연인과 용양봉저정 공원을 방문해 한강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탁 트인 전망대에서 삶의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행복주택 복합건물 국제설계 공모

서울특별시가 '노동자복지관'과 '행복주택' 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강서수도사업소 구로청사 부지(구로구 가마산로 272)에 노동자 복지시설인 '노동자복지관'과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임주용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연관성이 다소 적은 이 두 공간을 기능적으로 차별화하는 동시에 균형감 있게 설계 및 조성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목적이다.

새롭게 건립될 노동자복지관&행복주택은 연면적 약 22,000㎡규모로 저층부는 노동자복지관,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건립시기는 '24년 12월이다.

먼저 '노동자복지관'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계획될 예정이며, 시설의 직접 이용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 안정, 체육·문화·교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및 노동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한다.

'행복주택'은 최근 젊은 세대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중심으로 계획될 예정으로, 일부 신혼부부용 주택도 포함될 예정이며, 공급유형을 다양화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공공성을 갖춘 행복주택 계획을 찾고자 한다.

이번 국제설계 공모 참여 접수는 4월 29일~5월 7일까지며, 7월 21일에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홈페이지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는 국내·외 건축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출작품을 대상으로 7월 29일 국내 유명 건축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당선작은 7월 30일 발표 예정이다.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임회 예정이다.

최종 당선자에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의도 구현권을 갖게 된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작품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선작 외에도 2~5등의 입선작을 선정해 설계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of the Multi-use Project for the Labor Welfare Center and Happy House in Seoul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및 행복주택 복합화사업 국제설계공모

참가등록 2021. 4. 29(월) ~ 5. 07(금)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

입력접수 2021. 4. 29(월) ~ 5. 14(금) 18:00까지

심사접수 2021. 4. 29(월) ~ 5. 14(금) 18:00까지

작품접수 2021. 4. 29(월) 09:00 ~ 17:00 까지

작품심사 2021. 5. 14(금) 18:00 ~ 2021. 5. 21(금) 18:00

결과발표 2021. 5. 21(금)

2021. 04. 29 ~ 05. 07

I-SEOUL U 서울주택도시공사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자복지관과 행복주택은 기능이 다르지만 시민들의 노동권익보호와 주거권익보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두 공간이 다른 목

적을 갖고 있지만 조화롭고 편의성 높은 건축물로 조성할 우수한 건축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용인시, '한 달에 한 권 읽기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용인시 수지도서관, 홈페이지서 선착순 40명 마감

용인시 수지도서관이 '한 달에 한 권 읽기 프로젝트 - 함께 읽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선착순 40명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함께 읽기'는 한 달에 한 권 함께 읽을 주제 도서를 정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인문학 전문 흥영택 강사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 3~4월에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와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각각 주제 도서로 정해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5월의 주제 도서는 오스카 와일드

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19세기를 살아온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을 읽고 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새로운 표상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볼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지도서관 관계자는 "함께 읽기는 한 달에 한 권이라는 목표설정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앞으로도 독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오산시 가정의 달 '배달특급가족사랑' 특별이벤트



오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가족사랑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에서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결제하거나 '가족사랑 응원 이미지'를 본인 SNS에 게시하고 인증할 경우 '배달특급' 앱에서 주문 시 사용 가능한 3천원 또는 6천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두 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

먼저, '가정의 달엔 오색전과 함께 풍성한 혜택!' 이벤트는 아버지 날 전 5일간(5. 1일부터 5. 5일까지) 및 석가탄신일 전 4일간(5. 13. ~ 5. 16.) 실시하며, 해당 기간에 지역화폐로 결제한 선착순 200명(총 400명)을 선정해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5월 7일과 5월 18일에 각 기간 별 선정자에게 지급하며 지급된 쿠폰은 '쿠폰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배달특급 X 오색전 가족사랑 응원 이미지 SNS 인증하기' 이벤트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실시하며, 배달특급 앱 또는 오산

시 지역경제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배달특급 X 오색전 가족사랑 응원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게시 후 인증한 선착순 100명에게 배달특급 6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게시글 인증은 배달특급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할인쿠폰은 5월 28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배달특급 앱 또는 오색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배달특급 이벤트를 통해 집에서 함께 하는 식사를 돕고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번 이벤트로 많은 시민들이 배달특급을 이용해 지역경제 선순환 환경 조성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충전 시 10%의 선 할인 및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제공받아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남주기자

제1회 의왕시 청소년의 날 기념 '90초 영상 공모전' 개최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은 제1회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9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영상 △청소년이 원하는 '의왕시 청소년의 날' 중 1개를 선택하면 되며, 영상은 90초 이내의 순수 창작영상으로 9세~24세 청소년(개인 또는 2인 이상의 단체)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출품작(영상) 1편과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yyf1318@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상과 함께 시상품으로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무선이어

폰 등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의왕시 청소년의 날인 5월 29일에 있을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감성인 영상제작 활동으로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참신한 영상을 제작해 주길 바란다"며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준균기자

파주교육지원청, 파주on 미래교육 연수 '미리캔버스와 슬라이드고를 활용 원격 수업 자료 만들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29일 오후 파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미리캔버스와 슬라이드고를 활용 원격 수업 자료 만들기' 연수(온라인)를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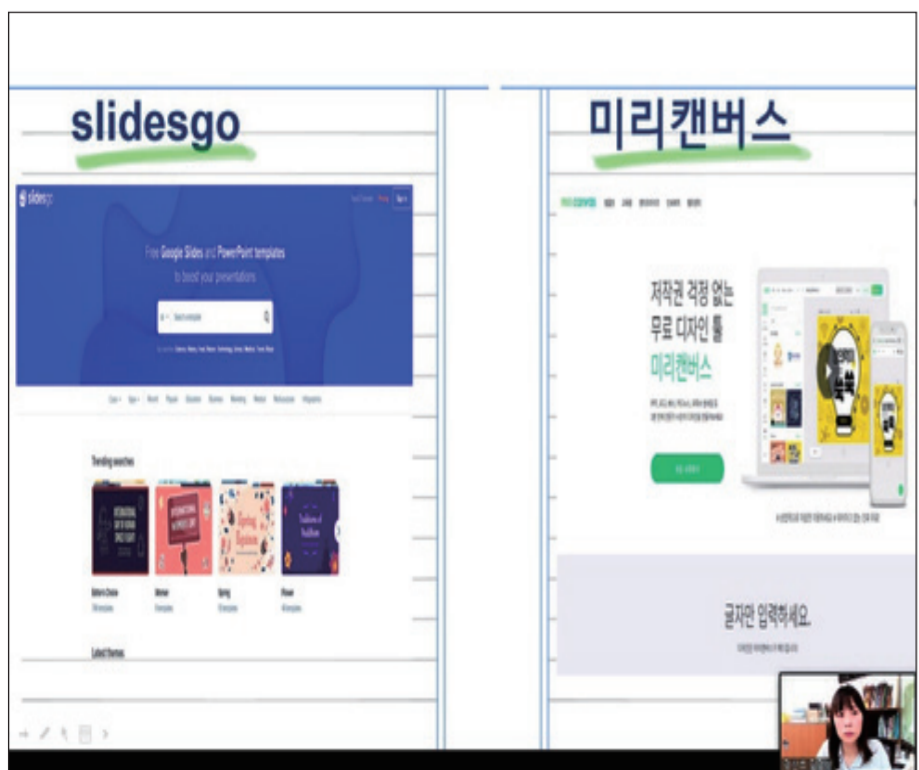
이번 연수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파주혁신교육지구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교직원 성장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교직원 성장을 위한 여러가지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희망자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미리캔버스와 슬라이드고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및 실습 위주로 이루어졌다.

연수를 진행한 김산초 교사 김경아는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롭고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이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 자체 학습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영기기자



시흥시 정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라인 활동 체계 구축

시흥시 정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원철, 공공위원장 이정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복지공백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활동체계를 구축한다.

정왕4동 카카오톡 채널 '복지사다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 소득감소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제보하고 익명성으로 1:1 복지 상담도 가능하다. 채널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복지정보 공유 및 친구가 쿠폰 활용 등을 적극 홍보 중이다.

더불어 정왕4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방식도 비대면으로 개선했다. 온라인 카톡방에 질문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전 위원이 함께 새로운 특화사업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복지현안을 적극 논의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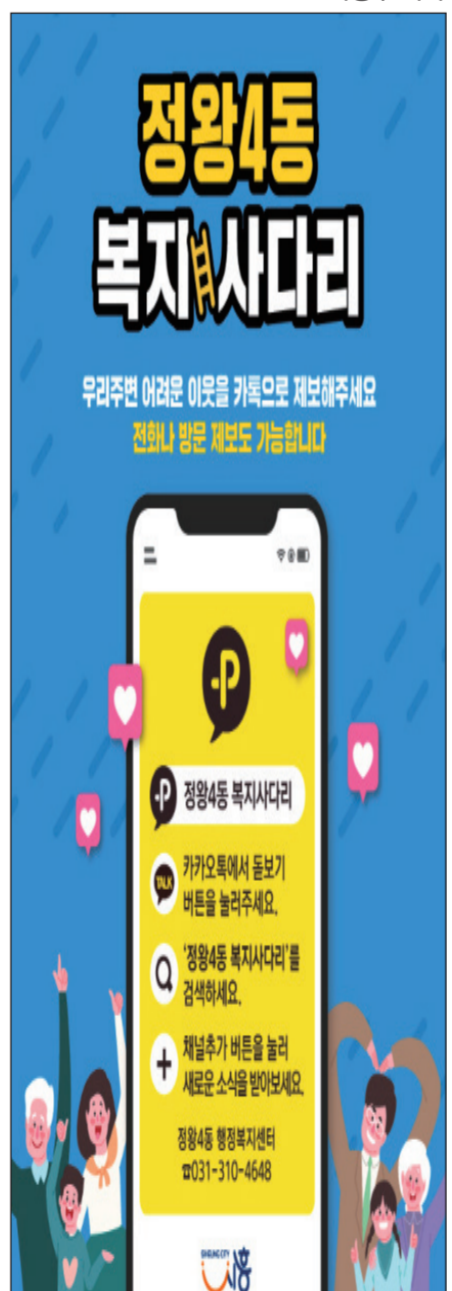
아울러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정왕4동 주민자치회 '유튜브 방송국'과 연계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온라인 복지 영상 콘텐츠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신원철 민간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온라인으로 안전을 도의하고 교육도 공유해 위원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활발히 활동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정수 정왕4동장은 "민·관이 함께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사각지대 발굴도 지속 병행하며 코로나 시대 양방향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

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5월 한 달 간 이벤트 열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가 어린이날과 개관 2주년을 맞아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어린이 날인 5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문화센터 키즈체험관 이용 가족에게 '도담도담 민속놀이 키트'가 제공된다.

개관 기념일인 7일에는 키즈체험관 이용객 중 5월 7일생인 어린이를 위해 코리도 캐릭터 인형이 준비됐다.

또한 7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문화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일축하퀴즈'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나는 꿈꾸는 별 키트'가 개별 발송된다.

어린이문화센터 SNS에서도 이벤트가 진행된다. 5월 한 달간 키즈체험관 이용객 중 SNS 팔로우 고객에게는 홈디오 상품을 선물하며, 체험관 이용과 관계없이 1일부터 16일까지 '화성시' 또는 '어린이'를 주제로 삼행시 댓글을 달면 총 20명을 선정해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최정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와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 '생일 축하해!' 이벤트는 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를 필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기간은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민트스튜디오, 페이스 북, 카카오 채널)의 공식 SNS 채널을 검색하여 팔로우,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이벤트는 당일 이용 고객에게 기념품이 증정되며, 오전 11시~12시, 오후 3시~4시까지 영수증을 지참하신 후 안내데스크에서 기념품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단위로 기념품 증정)
 ※ 기념품 소진시 행사가 종료됩니다.

영양군-영양군새마을회 코로나19 퇴치! Again 안심 경북! 캠페인 펼쳐

영양군은 영양군새마을회와 함께 29일 오전 10시 영양전통시장 등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퇴치! Again 안심 경북!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6일부터 2일까지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운영 함에 따라 군민에게 자율적인 방역활동 전개 및 방역수칙 홍보를 위해 펼쳐지게 되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코로나 퇴치 어깨띠를 하고 "코로나 퇴치! 민생안정!" 구호를 외쳤으며 영양전통시장 일원을 가두행진하며 홍보물, 마스크 1,500장 및 손소독제 70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였

다.

특히 영양군 새마을회는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일제방역의 날 운영, 성금전달 등을 통해 관내 코로나19 확산 자제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김중탁 새마을회장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필요한 시기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봉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영양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군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영양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포항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년 관광두레 사업 최종 선정!

포항시 이나나 씨,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PD로 최종 선정

포항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년 관광두레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관광두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내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여행·체험·레저·관광기념품 등 관광자원을 소재로 관광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두레 PD'는 현장에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역량강화, 창업과 경영개선, 네트워크 구축까지 지역과 주민사업체의 여건에 맞게 밀착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공동체 주민, 한국관광공사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관광두레사업단과 함께 중간 지원 임무를 하게 된다.

포항시 신규 관광두레 PD는 이나나 씨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류평가, 발표와 면접평가뿐만 아니라 3개월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와 사업계획 발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기본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활동하게 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역량강화 교육 기회와 활동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나나 관광두레 PD는 "포항시의 관광자원을 조사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해 성장시켜나감으로써 관광조직 발전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규 관광두레 PD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관광두레 PD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관광사업체를 육성해 포항관광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광두레 PD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기현/기자

경주시, '너랑나랑우리랑' One day 특별체험활동 운영

가정의 달 5월, 소중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경주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리랑(너랑나랑우리랑) 원데이 특별체험활동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은 스낵바구니 카네이션 △자이언트 카네이션 △디퓨저 카네이션 등 3가지 만들기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정별로 15명을 모집해 이달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홍정옥 아동청소년과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내가 받을 혜택이 한 눈에! 보조금24 전국 시행

'보조금24' 접속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 내가 받을 혜택 조회 가능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4월 2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부터 인천, 충남과 함께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5개 구·군에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며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한 바 있다.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보조금24 전국 개통식'에서 배정식 대구시 평가담당관이 시범기관을 대표해 시범운영 결과 및 전국개시 준비상황을 발표하며 전국 개시 준비를 원활하게 마쳤음을 알렸다.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 필요 없이 '정부24' 로그인 후 이용동의 한번으로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 한 장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까지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24 운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견훤 특별기획전에 상주 청계마을 주민들이 초청된 까닭은?

상주박물관, 주민 10여 명 초청해 관람 행사 열어

상주박물관이 4월 29일 특별기획전 '역사에서 신화가 된 견훤'에 견훤과 관련된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이색 행사를 열었다.

상주박물관은 이날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 청계마을 주민 10여 명을 초청해 전시회를 관람토록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월 보름(음력 1월 15일)이면 마을에 있는 사당에 모여 마을신인 견훤대왕에게 마을과 상주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마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상주 출신인 견훤은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영남지도'(1750년경 제작)에 청계마을 뒷산이 견훤산이고 '상산지'(1786)에 견훤성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데다 이곳에서 견훤이 군사를 양성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면서 제사를 모시게 됐다고 한다. 마을에 있는 견훤사당(경북도 민속문화재 제157호)의 상량문에 적힌 연대(1843년)로 볼 때 이 사당이 조선시대에 건립됐고 동제도 오랜 세월 이어져 왔다는 게 주민들의 말이다.

청계마을 주민들은 이날 박물관 전시실에서 자신들이 동제를 지내

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관람했다. 박물관 측이 동제 준비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 등을 담은 자료를 전시하고 견훤사당도 재현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들 본 주민들은 "힘들어도 제사를 지내온 것에 보람을 느낀다. 사당도 재현돼 아주 뿌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은 이어 박물관 인근 상주자전거박물관도 견학했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 측이 주민들에게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그동안 동제를 지내며 전통을 계승한 점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호필 상주박물관장은 "동제를 전승하는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취지에서 행사를 열었다"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시작된 특별기획전은 6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상주에서 태어나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한반식/기자



영주의 대표 맛집 신청과 추천받아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 및 추천 가능

경북 영주시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영주 맛집' 선정을 위한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8월 「영주시 맛집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월 '영주시 맛집선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가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영주시 맛집선정위원회'는 지난해에 시민평가단이 추천한 '영주 맛집 21개소'를 업그레이드해서 숨은 맛집 발굴을 위한 신청과 일반시민들로부터 추천도 받는다.

또한 젊은 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영주시 맛집선정위원회' 구성에 청년 위원 3명을 포함했으며, 현장평가 시 조리종교 학생들을 포함하는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맛집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영주 맛집'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광진흥과 또는 영주외식업지부로 방문 접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되며, 숨은 맛집 발굴을 위한 추천은 추천음식과 추천사유를 전화로 하면 된다.

'영주 맛집' 신청자격은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공고일(5월1일) 기준 영입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프랜차이즈업소(본점제외), 지방세 체납업소, 영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1차 서류검토, 2차 위생평가, 3차 현장평가, 4차 영주시 맛집선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되며, 올해 9월경 '영주 맛집' 선정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절차는 1차 서류검토, 2차 위생평가, 3차 현장평가, 4차 영주시 맛집선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되며, 올해 9월경 '영주 맛집' 선정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영주 맛집'에 선정된 업소는 영주시 홈페이지와 영주여행(앱)에 등재, '영주 맛집' 표지판 교부, '영주 맛집'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

이 주어진다.

이용원 홍보팀장은 "이번에 선정하는 '영주 맛집'은 식품계, 관광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영주시 맛집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며, "영주시를 대표하는 맛집을 선정하는 만큼 맛, 위생, 친절 등 다방면에 걸쳐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 맛집'에 선정된 업소는 다양한 혜택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므로 관내 우수한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추천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기자



봉화군, 아이행복 가족행복 사진 공모전 개최

봉화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여 봉화군민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아이행복 가족행복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봉화, Happy Together'라는 주제로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하며, 자녀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공유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봉화군민 또는 봉화군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진과 필자명 및 연락처, 선정작을 기재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응모한 작품들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20점이 선발되고, 선정작은 6월 7일 개별 통보되며, 봉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금성 군민행복과장은 "코로나 시대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수학과 전문성 신장 블렌디드 러닝 직무연수' 실시

인공지능 수학과 기본 수학, 에듀테크 활용 강좌 등 16개 과목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은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중등 수학과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수학과 전문성 신장 블렌디드 러닝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에 수학과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추가되는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인 인공지능 수학과 기본수학 과목을 포함했다.

이 연수는 인공지능 수학 4개, 기본 수학 3개, 수업에 바로 사용하는 에듀테크 활용 2개, 함수, 확률 등 프로젝트 수업 5개, 기타 2개 등 총 16개 과목으로 구성해 줌(ZOOM)을 활용해 원격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한다.

모든 과목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설계와 블렌디드 러닝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 언택트 시대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부산진여상의 한 수학교사는 "2학기부터 인공지능 수학과 기본 수학 과목이 새롭게 개설되어 당장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연수가 개설되어 수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한 교육연수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사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한다"며 "이번 연수가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진로선택 교과 수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남해군, 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남해군 청년, 주택 월세 지원금 신청하세요”

남해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인원 40명에서 1차 모집시 미달한 인원을 이번에 선정하게 되며 선정 예정 인원은 16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가 15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4월 27일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돼 있어야 한다.

신청기준은 가구원 가구소득 기준 선정기준은 가구원 가구소득 기

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남해군 청년시약동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세대주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뒷순위로 배정될 예정이다.

신청기준 중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은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의 경우 신청인 본인,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은 부모, 신청인, 세대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만 18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또한 기혼 청년의 경우는 주소와 관계없이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게 된다.

신청 제외 사유 및 중단 사유로는 신청인 및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등 월세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신청예정인원 16명
신청기간 2021.5.3.~5.12. (10일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 2021년 4월 27일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 19세~만 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내 주택 임대차 계약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신청기준
- 가구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인정액 낮은 순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임차료 (2월~11월 임차료, 최대 10개월)
*임차료가 15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지원

자세한 사항
-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 남해군 청년센터 홈페이지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21년 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국지자체 단위로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부모, 형제가 대리 신청 시 필요) 등이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남해군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훈/기자

하동 녹차밭에서 사진 찍고 상품도 받고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기념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아 더욱 뜻깊은 행사로 추진된다.

참여대상은 하동군에 주소를 둔 부부나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방법은 하동에 있는 녹차밭에서 하트 포즈로 사진을 찍어 이메일 전송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5월 1일~5월 21일이며, 선착순 200쌍에게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3만원을 증정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

동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숙 회장은 "올해 코로나로 함께 모이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기는 하지만,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고, 부부간에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부의 날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자는 취지에 따라 200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광용/기자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개최기원

5월부부의날 EVENT

5월 21일 부부의날을 맞아 이벤트에 참여하면 하동사랑상품권 3만 원이 드립니다

대상 하동군에 주소를 둔 부부(예비부부 포함)

참여방법 녹차밭을 배경으로 하트포즈의 부부 사진을 찍어 이메일 전송 *하동 녹차밭(리미트) 어느 곳이든 OK!

참여기간 2021. 5. 1.(화) ~ 5. 21.(금) *자기어린 대상 (선착순 200쌍)

보내실곳 hadonggun2019@naver.com *이메일에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함께 보내주세요! (모바일상품권 전용용)

상 품 모바일 상품권 3만원 *2021. 5. 24.(월) 발송예정

문의처 하동군 여성단체사무실 ☎ 055)880-6531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

밀양시,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실현 홈페이지 오픈

밀양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보 접근 편의성과 소통 증진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일주일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시책을 비롯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귀농귀촌 가이드, △영농정보, △빈집정보, △귀농귀촌 우수사례, △온·오프라인 교육정보 외에도 귀농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를 연결해 도시민에게 필요한 사전지식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환경에 최적화하고 밀양시청 홈페이지 등으로 링크시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온라인 상담' 코너를 개설해 업무 시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해 귀농귀촌을 유인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을 새롭게 단장해 지난 4월 21일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하고 손질맞이 준비를 마쳤다.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귀농귀촌 One-Stop 정보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과 홍보활동,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밀양시 귀농귀촌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상담으로 문의하거나 방문, 온라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남궁영기/기자

김해사랑상품권으로 배달앱 결제가 가능해진다

민간 배달앱에 김해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탑재

김해사랑상품권으로 배달앱 결제가 가능해졌다.

김해시는 배달업 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높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지난 3월 '배달앱 김해사랑상품권 결제가능 탑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맥게비와 위메프, 율하오더, 오이 총 4개의 배달앱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맥게비와 위메프에서는 김해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이, 율하오더는 시스템 구축 중으로 상반기 안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맥게비, 위메프 등은 2% 이하의 저렴한 중개수수료 정책을 갖고 있으며 해당 배달앱에서 김해사



zero 페이 제로페이

김해사랑상품권

오잇 위메프 오이

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수수료가 절감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도 받고 온라인 사용처가 늘어나는 등 이점이 많다"며 "김해사랑상품권을 해당 배달앱에서 많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낮은 중개수수

료와 김해사랑상품권 결제기능을 탑재한 배달앱을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모두 혜택을 받아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있다"며 "배달앱 홍보와 가맹점 가입 독려 등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울산 남구, 민원공무원 1:1 전문가 심리상담 실시

울산 남구는 3일부터 21일까지 주 3회, 민원접점이 많은 부서(민원여권과,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직원과 그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전문가 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협박 등으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스트레스 검사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전문가 심리상담은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뿐만 아니라 불안감, 대인관계, 육아상담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한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무실과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화사한 꽃과 아로마 향초 등으로 상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동안 직원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며, "이번 전문가 심리상담으로 조금이나마 정신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민원 에티켓 포스터 및 안내판 제작,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 설치, 사무실내 CCTV 및 비상벨 설치,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안전한 민원 근무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내가 꿈꾸는 귀농귀촌

밀양에 함께 살아요!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1.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2.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3.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4.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5.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6.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7.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8.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9.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10.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울산시 2022년 국비 확보 활동 전방위 확대

오늘(30일) 지역 국회의원 방문, 초당적 공조 요청

울산시가 민선7기 연속 3조 원 대 국비 확보를 목표로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4월 30일 조원경 경제부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국비 및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2021년 국비확보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정부안 단계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로 대정부 설득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월 '평가보고회', 2월 '전략보고회'와 3월 '신규사업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국비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할 주요 국비 사업을 보면 지역 공공의료 체계구축을 위한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울산에 특화된 탄소중립 홍보 거점이 될 국립 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 영남권 숙련기술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영남권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농소~강동간 도로건설,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 등 광역시

위상에 걸 맞는 사회안전망과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조기 달성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 미래 수소경제 사회로 가기 위한 울산 수소 시범도시 조성, 기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 구축,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사업, 해상디지털 통합성능 검증 테스트베드 기술개발, 5지(G)기반 엑스아르(XR) 해양콘텐츠 플랫폼 개발, 3D(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미래자동차 전의장 및 전동부품 기술전환사업, 개농·강소연구·이산화탄소 특구사업 등 그린에너지, 주력산업 고도화, 3D(D)프린팅·5지(G)·인공지능(AI) 등 정부정책과 산업 트렌드에 맞춘 친환경·최첨단 신산업 국비확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울산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철도(트램) 건설, 울산 서부권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국도24호선의 교통 분산을 위한 국도24호선 지선(연양~범서) 건설, 올해 3월 공모에 선정 된 예코(ECO)-모

빌리티 혁신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정부 상시계획 반영과 국비확보를 요청한다.

중앙부처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는 오는 5월에는 송철호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부 수시로 방문하여 대정부 설득 총력을 펼치고,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 공조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송철호 시장은 연초부터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부울경 광역공동망, 울산의료원, 도시트램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챙기고 있다.

한편, 2022년도 국가예산은 4월부터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중앙부처 신청, 5월중 중앙부처 심의, 6월에서 8월중 기획재정부 심의, 9월 2일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일정을 거쳐, 12월 2일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김기현/기자

전남교육청, '교육감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놀이' 영상 배포

전라남도교육청이 어린이날을 맞아 '교육감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놀이' 영상을 제작·배포해 눈길을 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놀이동아리(곤지곤지 팀, 노마야 놀자팀)와 공동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놀이-누그러니! 받거니!' 영상을 지난 3월부터 매달 한 편씩 제작해 시리즈로 배포하고 있다.

이 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놀이로 풀고, 부모-자녀 간 정서적 교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으며 총 5편 중 현재 3편까지 유튜브에 탑재했다.

이번 특별판은 '제99회 어린이날' 기념 각종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장석웅 교육감과 학부모들이 함께 출연해 가정에서 놀이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이 영상에 수록된 놀이는 △ 게임으로 자기 소개하기 △ 369 △ 만두만두 △ 점어점어 등 가정과 학교에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촬영에 참여한 학부모 놀이동아

리(곤지곤지, 노마야놀자) 회원들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 모두 어려운 시기 놀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첫 촬영 때부터 출연하고 있는 김강미(순천부영초 1), 최우석(송산초 6) 학생은 "엄마와 함께 한 놀이들이 너무 재미있고 촬영하면서 엄마와 더 친해지는 기분이다."면서 "다음 편에는 어떤 놀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며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도 함께 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놀이는 자녀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다."면서 "이번 놀이 영상을 통해 온 가족이 놀이로 소통하며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슬기로운 집콕놀이' 특별판을 5월 3일 공개하고, 홈페이지(전남교육청)와 유튜브, 전남학부모회 연합회 밴드에 탑재할 예정이다.

김영안기자



진도군·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취약 계층에게 농산물 꾸러미 전달

진도군과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가 농산물 꾸러미를 활용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와 취약계층을 돕는다.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가 농산물 꾸러미 50개(개당 10만원 상당)를 지원했으며, 농산물 꾸러미는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영세농과 고령농, 여성농에게 전달된 농산물 꾸러미는 잡곡, 장류 등 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희식 지부장(농협 진도군지

부)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민을 위해 진도군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나눔을 실천한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에 감사하다"며 "농산물 꾸러미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양호기자

목포시, 내가 받을 혜택 '보조금24'로 한번에 확인

'정부24'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5개 중앙부처 서비스 확인

국가보조금을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지난 4월 28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보조금 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보조금 24'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보조금24'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공공서비스도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조회할 수 있는 등 목록이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 SNS, 포스터, 리플렛 등을 통해 보조금24 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으며,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창구담당자를 지정해 보조금24 교육 실시했다.

또 온라인으로 조회가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를 민원대에 비치해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일기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 경력잇기 캠페인

중소기업 현장방문 커피트럭 지원, 경력단절 인식 개선 홍보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찾아 '여성의 경력 잇제나 W-ink 캠페인'을 펼친다.

W-ink 캠페인은 여성이 결혼·출산·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가정·기업·사회가 노력해 경력단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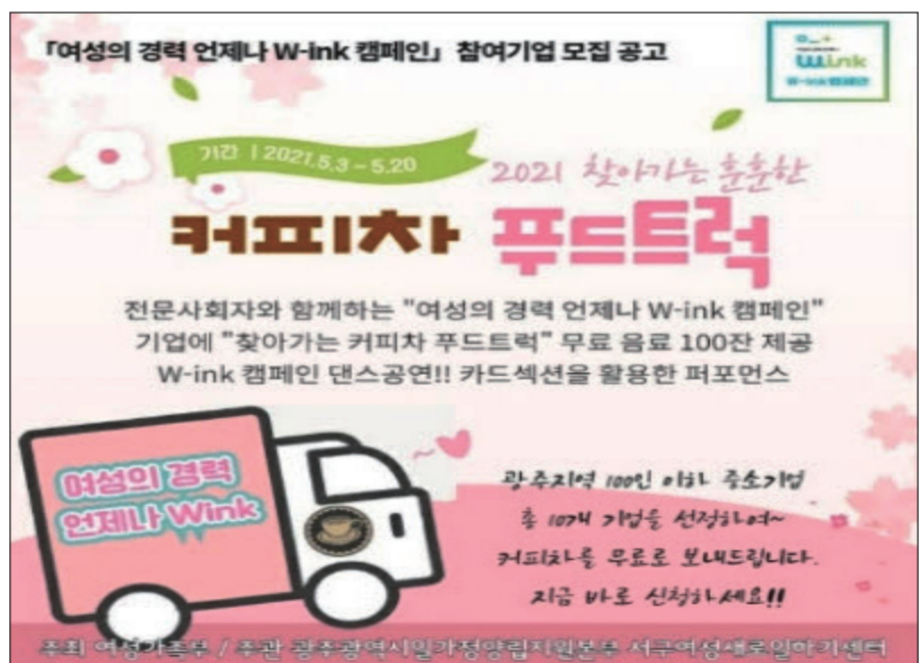
올해는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10곳을 찾아가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기업 종사자들에게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윙크 캠페인 댄스와 희망메시지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 영상을 촬영해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윙크 캠페인 영상은 올해 7월부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 10곳은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력단절예방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며 "이번 캠페인에 많은 기업이 참여해 경력단절 없는 기업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정 추기경 본받아 생명 존중 사회를"

29일 추도문 통해 "대한민국 큰 어른...온 도민과 함께 애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준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진석 추기경 선종 추도문을 통해 "한국 천주교의 자애로운 목자이자 대한민국의 큰 어른인 정진석 추기경의 명복을 빌며, 온 도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정 추기경은 지난 1961년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 이 땅 위에 생명과 가정의 가치가 자리 잡는데 힘썼다"며 "청주교구를 맡으며 생명을 사목활동의 맨 앞에 뒀고, 서울대교구를 이끌며 생명 운동을 힘껏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울림을 줬다"며 "전남도는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추기경이 우리 곁에 계셨던 것은 큰 축복이자 영광이었다"며 "장기와 금전 잔액을 모두 불현하며 마지막까지 '모든 이에게 모든 것(Omnibus Omnia)'이 돼준 추기경이 환한 미소와 함께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장성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장성군이 주택 12,607호에 대한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조사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장성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 가격상승(10.14%)과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지난해 대비 10.62% 상승하였다.

읍·면별로는 나노산단, 연구개발특구(첨단 3지구), 국립심혈관센터 등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진

원면과 남면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택 수요가 증가한 황룡면, 장성읍, 동화면도 상승하였다. 열람가격은 남면 삼태리 다가구주택이 6억 3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북이면 백암리 단독주택이 17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후 1년간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재조사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한다.

오홍곤기자



영암 기업도시에 KLPGA 골프레저타운 조성

전남도-KLPGA, 공식대회 개최박물관명예의 전당 조성 등 협약

전라남도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일 영암 기업도시에 'KLPGA 골프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영암 삼호지구 골프장을 메이저대회 개최에 적합한 국제적 수준의 골프장으로 조성해 'KLPGA 공식 골프장' 명칭을 사용하고 매년 KLPGA 공식 대회를 개최한다.

골프장 인근에 골프 아카데미와 연습장을 만들어 KLPGA 회원의 교육과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골프지망생과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또한 골프 발상지인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 골프박물관을 벤치마킹한 골프 특화 박물관과 KLPGA 명예의 전당을 국내 최초로 건립,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LPGA는 연수원과 레저시설을

결합한 복합레저공간인 'KLPGA 플라자'를 건립해 국내외 골프선수과 지망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와 골프 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KLPGA 네이밍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을 지역축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이날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에서 가진 업무협약식에 앞서 양덕준 사우스링스 영암CC 회장은 골프레저타운 조성 계획을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정태 KLPGA 회장(하나금융그룹 회장), 전동평 영암군수는 명품 골프레저타운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업무협약 후에는 '크리스 F&C 제 43회 KLPGA 챔피언십' 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선수와 관계자를 격려했다.

지난 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KLPGA 5대 메이저대회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다. 지난해부터 골프특화 협력사업의 하나로 사우스링스 영암CC에서 개최하고 있다.

사우스링스 영암CC는 영암 기업도시인 삼호지구 내 골프장으로, 영암호 매립지 일대에 조성됐다. 스코틀랜드의 링크 코스 스타일을 적용해 코스 조성 당시부터 원형지의 특성을 반영, 곳곳에서 생태습지, 토착수종, 수로, 절사 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골프장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암 삼호지구 골프장에서 메이저 골프대회를 열고, 특히 골프특화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암 기업도시의 명품 골프장에 KLPGA의 브랜드와 명성을 더해 세계적인 골프레저타운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차(茶)의 정수를 말하다, 장흥 청태전

청정 강진 '오프마을 만들기' 출항

28일 출범식을 갖고 주민 주도 45개 마을 경관가꾸기 사업 시작

세종실록지리지에 전국 19개소 다소 중 13개소 장흥 존재

장흥의 특산물 가운데 청태전이 있다. 청태전의 뜻은 '푸른 이끼가 낀 동전 모양 차'로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그 맛과 향이 뛰어난 장흥의 명물이다.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1000여 년을 이어 온 전통 발효차로, 찻잎을 찌서 동그랗게 빚은 다음 가운데 구멍을 뚫어 말린 모양이 동전과 같아서 '전차', '돈차'라고도 불렀다. 혹은 절구에 찧어 틀을 찍어내서 '떡차'라고도 했다.

그 유래는 세종실록지리지, 경제유표,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신라시대에 보림사에서 청태전이 처음으로 재배됐다"는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 19개소의 다소(茶所, 차를 생산하는 곳) 중 13개소가 장흥에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를 통해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장흥이 차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흥 일대는 제반 자연적 입지 조건이 다진 분포에 적합해 양질의 차가 생산된다. 차 자생지로 가장 많은

자생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차 분포와 재배의 적지로서 일찍부터 차 산업이 정착한 곳이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인 장흥에서 만들어진 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근세까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존재해 온 유일한 세계적인 차이다. 그 전통성을 인정받아 오늘날 한·중·일의 차문화 및 제다 발달사의 역사적 근간이 되고 있다.

이렇듯 깊은 내력을 지닌 청태전은 그 맛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비롭다. 청태전을 잘 말려서 향이리에 넣고 1년간 숙성한 다음 차로 마시면 순하고 부드러운 맛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 준다. 장흥에서는 약이 귀하던 시절 아이가 아플 때면 할머니가 약 대신 청태전을 끓여 줬다 하여 '약차'로도 통한다.

청태전은 장흥 곳곳의 야생 차밭에서 채취되며 주 생산 지역은 장흥읍(행원리 소나무숲 일대 10ha), 관산읍(전관산 자락 30ha), 유치면(가치산 비자나무숲 일대 40ha), 부산면(관한마을 대나무밭 주변 20ha)이다. 생산용 야생 차밭은 283ha이고, 이중 100ha 정도에서

찻잎을 채취한다. 동매등, 평지등, 인당골, 부두골, 음야골, 비자나무골, 작은새동, 돈목골 등에 야생 차밭이 분포되어 있다.

4월부터 5월까지 활발하게 찻잎을 채취하며, 채취된 찻잎은 실내에서 하루 동안 말린 뒤 찌낸 다음 절구에 빻는다. 이후 모양을 잡아 1차 건조를 하고, 구멍을 뚫어 묶은 뒤 2차 건조를 해 총 6개월 이상 숙성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아는 청태전이 만들어진다.

장흥에는 청태전을 시음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다원이 존재한다. 현재 청태전의 시음과 판매를 진행하는 다원은 △장흥다원 △다소원 △보림다원 △여암다원 △장흥청다원 △청태전연구소 △천관다원 △평화다원 △성림다원 △수인산다원 △실송다원 등이 있다.

이중 장흥다원과 평화다원에서는 청태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청태전 만들기를 비롯해 차나무 화분 만들기, 다도, 치유농업체험, 차명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다. 체험을 원할 경우로 전화



해 예약하면 된다.

이밖에도 장흥은 다류 전문가 양성, 청태전 표준 제다 실습, 청태전 품질 평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태전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흥 차의 전통과 역사적 명성을 회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최근 소비량이 늘고 있는 발효차 시장을 장흥 청태전으로 선전한다는 계획이다.

장흥은 청태전 복원과 상품화 등에 노력해 2008년과 2014년 세계 녹차컨테스트에서 최고금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이태리 투린 시에서 전통 종자와 음식을 보존하고자 추진된 맛의 방주 프로젝트에

서 '돈차'라는 이름으로 등재됐다. 이후 2014년 '슬로푸드 프레스리다아(Presidia)'에 선정되어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뤄 대내외로 그 가치를 입증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발효차 시장을 겨냥하여 청태전의 진가를 인증해 보이겠다"며 "청태전에 보이차와 같은 속성 발효 기법 등을 도입해 청태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장길기자

전주시, 대학생들과 도시재생 해법 찾기 나서

도토리골 새뜰마을 사업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적용 가능한 새 아이디어 발굴기로

전주시와 대학, 민간 기업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승현우), 포스코건설(사장 한성희), (사)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는 지난 28일 '도토리골 새뜰마을 도시재생 해법찾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민·관·학이 협력해 도토리골 새뜰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재학생 24명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도토리골 새뜰

마을을 찾아 '디자인 씽킹' 방식을 활용해 도시재생 사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재정적 지원, 한국해비타트는 도새재생 자문 및 정보 협력, 포스코건설은 건설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전문인력과 물적 지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시는 학생들이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재생 1번지 전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호 전북대 LINC+사업단장은 "지역 문제 솔루션 제안 및 로컬 이노베이터 양성 등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문제해결 워크숍을 진행하며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네트워크

장이 될 것"이라며 "민·관·학이 협력해 다양한 도시재생 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어린이날을 맞아 축하 영상메시지 전해

군산시 강임준 시장이 코로나19로 취소된 제9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대신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해마다 어린이날에 군산시기독교연합회와 삼동청소년회 군산지부가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우려로 어린이와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고 영상메시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강 시장은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게 된 아쉬운 마음과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시청 홈페이지 통해 관내 어린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을 비롯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생생직업체험교실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김현태기자



최만식기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2021 속초 문화버스킹강원도 청소년 버스킹 한마당 공연단체 모집

(재)속초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문화예술인과 청소년들이 젊음의 끼를 발산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1 속초 문화버스킹」 사업을 7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이 함께 구성되어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공연단체는 이번 공모 후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청소년 공연단체 확정 후 선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공연단체 신청자격은 강원도 소재의 청소년으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구성된 공연 가능한 단체이며, 신청 분야는 악기연주, 노래, 퍼포먼스, 국악 등 거리예술 전 장르로 한다. 접수 기간은 2021년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참가 신청서와 공연영상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접수한 단체는 전문심사위원의 심사 후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7~8월에 진행되는 「2021 속초 문화버스킹」 청소년 공연단체로 참가하게 되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변경될 수 있다. 재단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 불투명 지쳐있는 시민과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청소년 모두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활동적이고 열정이 가득한 강원도 내 청소년 공연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2021 속초 문화버스킹 강원도 청소년 버스킹 한마당 공연단체모집

신청대상	만14세이상 만19세 미만 강원도 청소년으로 구성된 공연가능한 단체
신청분야	악기연주, 노래, 퍼포먼스, 국악 등 거리예술 전 장르
접수기간	2021. 5. 3.(월) ~ 6. 11. (금)
접수방법	속초문화재단 홈페이지 공모 참고 (sokchocf.or.kr)
문의	공연사업팀 T. 033-636-0670 E. jha0425@sokchocf.or.kr

YouTube
유튜브에서 속초문화재단을 검색해주세요
2020 속초문화버스킹 공연내용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재)춘천지혜의숲, 케나프코리아, (사)춘천생명의숲과 3자 MOU체결

친환경작물 보급과 일자리 창출의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강원도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은 케나프코리아 춘천생명의숲은 기후환경개선과 중장년층 일자리에 일조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춘천지혜의숲은 케나프 보급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케나프코리아는 종자제공, 기술자문, 정책제안을 추진하며, 춘천생명의숲은 식재와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식물로 알려진 케나프(양삼)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사료용으로 활용도가 높아 유엔이 미래자원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돌연변이육종 연구를 통해 신품종을 개발한 바 있다. 케나프는 이산화탄소 분해능력이

상수리나무의 10배 이상 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성장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으로 관심받고 있는데, 2020년 춘천에서 실험재배가 이뤄진 바 있는 이 식물은 기후와 토양에 대한 적응력이 좋고 재배가 용이하며 병충해가 적고 생육기간이 짧아 생산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는 썩는 비닐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제품원료로도 사용되고 바이오매스분야의 대표 작물로 친환경 에너지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조사료 작물로 사용되는 등 경제적 효과도 매우 기대되고 있다. 춘천지혜의숲 현원철 이사장은 "이미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어 그 효과가 입증된



케나프는 우수한 대기 정화능력과 바이오연료, 친환경 제품의 소재, 축산사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재배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강원도 홍천군 허필홍 홍천군수, 농번기 현장 방문해 어려움 파악



홍천군은 쌀 생산 농가의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고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질

허필홍 홍천군수 28일과 29일, 북방면과 남면 모내기 현장 시찰

강원도 홍천군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농촌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허필홍 군수는 지난 4월 28일과 29일 북방면과 남면을 방문, 모내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홍천군은 쌀 생산 농가의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고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질

소 비료, 육묘용 상토, 모판 병충해 방제 지원 등에 1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와 상생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 생산 및 제공을 위한 장기적 플랜트 수립하고 있다. 특히 홍천 농업·농촌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농업관련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정동희/기자**

고성군, 풍수해 보험 가입 집중 독려

강원 고성군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6월까지 집중 홍보·독려에 나선다. 고성군이 총 보험료의 70% ~ 92%까지 지원하고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국 시행되어 보험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70%에서 92%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해 줌으로써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 재해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과는 1,600만원, 반과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이 지원되지만, 풍수해보험은 전과 시 소유자의 경우 최대 7,200만원(세입자의 경우 최대 720만원), 반과 시 최대 3,600만원(세입자 최대 360만원), 침수시 최대 535만원

(세입자 최대 53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가입실적은 주택의 경우 1,552건, 온실은 143,224㎡, 소상공인은 16건이었고, 지난해 강풍, 호우, 태풍으로 주택 피해 7건이 접수되어 35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보험료는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등 차등 기반지원하고 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가입도 추진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아 절감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시, 포스터 부착, 리플렛 제작·배포, 길거리캠페인 전개, 읍·면·이장회의 및 주민자치회의, 각종 기관과 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군청 홈페이지 배너 및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 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피해 발생 시 복구비의 부담이 많은 만큼 중점가입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강원도 삼척시, 수소에너지용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강원도 삼척시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 확산에 대비해 지역 세라믹 원료·소재 산업을 다각화 하여 수소에너지용 소재·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삼척시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지원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이사업은 (재)강원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 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강원대학교가 참여하며 국·지방비 등 1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삼척시는 '에너지미래지원센터'에서 사업 참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

체 및 장비 공동활용 네트워크 구성 ▲ 신규구축 20종 및 시험/평가동, 가공동 리모델링 ▲ 시제품 제작지원, 시험/평가/인증 지원 및 기술 지도 ▲ 기업 맞춤형 기초/이론 교육, 장비활용 교육으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통해 수소에너지용 소재·부품산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와 수소 R&D 특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사업간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번 사업 유치로 삼척시가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해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60개 기업 유치 등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강원랜드복지재단 업무협약 체결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내 복지서비스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 기대

강원도사회서비스원과 강원랜드복지재단은 강원도 내 복지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약식은 지난 29일(목) 강원도사회서비스원과 강원랜드복지재단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랜드 행정동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사업추진 관련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향상 ▲사회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복지 전문가 등의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상호 협의 하에 구체적인 협력 방법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강원도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등원/기자**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원구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장은 "강원랜드복지재단과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강원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 강원랜드복지재단 이사장은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의 도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한 공급주체로서 지난 2020년 10월 출범하였으며, 종합재가센터 및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시설 컨설팅 및 안전점검지원, 정부위탁 사업운영,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추진 중이다. **이등원/기자**



강원도 정선군은 우리나라 대표 아리랑의 3대 고장인 경상남도 밀양시, 전라남도 진도군과 '대한민국 3대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세계화는 물론 아리랑의 전승·보존·창조적 계승과 함께 아리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실무자

회의 30일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개최하고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약식 개최 일정 확정 ▲사무국 운영 ▲협의체 운영에 따른 예산 운영 ▲협력사항에 따른 사업 확정 ▲사업추진 시기 등 향후 공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군은 그동안 밀양시와 진도군 등 3개 지자체와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공동협의체 계획안 제안 및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2월 25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추진



'대한민국 3대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

공동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마련하게 되었다. 군에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구성 협약식을 개최하고 아

리랑의 체계적 전승·보존 및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내 3대 아리랑(정선·밀양·진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아리랑의 체계적 보존·진흥 및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하여 아리랑의 가치를 재확산시키고 문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수집과 상호간 연구협력, 교류추진 등으로 아리랑의 세계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특별전시 '선사인의 취향' 5일 개막

인간의 취향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구석기시대에 시작된 인간의 태고적 취향을 도구와 예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들의 코드를 현대예술과 접목하는 특별한 전시가 공주 석장리박물관에서 열린다.

30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시는 '선사인의 취향, 현대에 도착하다'를 주제로 학술전시와 아닌 예술과 인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석기인을 비롯한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삶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확고한 취향이 석기와 각종 예술조각상에 반영되었음을 주목하고 그것이 현대에 전해지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5명의 청년 작가가 참여해 구석기시대 취향을 재해석한 '시간 여행자' 등 10개 그림이 유물과 함께 전시될 계획으로, 마치 구석기

미술관에 온 것과 같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이다.

전시는 석기를 도구와 아닌 예술 작품으로 재조명한 '세상에 하나 뿐인 작품 석기', 구석기인의 본성과 욕구를 표현한 동물조각상이 중심이 되는 '달콤한 꿈, 삶의 의지', '취향저격 구석기디자인' 등 총 3부로 구성된다.

특히 구석기디자인 코너에서는 구석기인의 취향을 모티브로 개발된 젊은 작가들의 아이디어 넘치는 구석기 기념품이 소개된다.

전시는 5월 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최되며, 연휴기간(5월 5일~9일)에는 특별전 기념품이 현장에서 한정판으로 판매된다.

전시와 관련한 내용은 석장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원호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 미세먼지 저감에 힘보탠다

친환경 도시구현 위해 "친환경 CNG 차량 이용 캠페인" 전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29일 대평CNG충전소에서 "친환경 CNG 차량 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미세먼지 대응 사업' 연구자료에 따르면 CNG 차량은 미세먼지 1톤 감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차량에 비해 훨씬 적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경유차 보다 2.8배 낮은 친환경 차량이다.

또한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CNG 연료의 가격은 휘발유에 비해 약 50%, LPG에 비해 약 33%가 저렴하다.세종도시교통공사는 평소에도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임직원들이 주요 운수업체와 전세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경제성까지 높은 CNG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매일 "친환경 CNG차량 이용 캠페인"을 상시적으로 펼칠 예정이다.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세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친환경 CNG 차량 이용 캠페인을 전개했다"면서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 도시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평 CNG 충전소는 매일 안전점검시행으로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교통중심지역 인근인 대평동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최신설비가 구축되어 있어 신속한 충전이 가능한 세종시 유일 CNG 충전소이다.

최재은기자



수마 할키고 간 영동 양산면, 예술활동으로 상처 치유

공공미술 프로젝트 성공리 마무리, 코로나19 극복하며 품격 높여

충북 영동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양산면 봉곡리 및 송호리 일대에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한국문화원연합회 영동지부'를 작가팀으로 선정하고 10월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달에 양산면 봉곡리 및 송호리 관광지 일대에 벽화 및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다.

약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군은 이달중 참여작가, 보조작가, 행정 지원인력 등 37명의 작가팀이 참여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 뉴딜의 일환이다.

이들 마을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가진 영동의 대표 관광지인 양산팔경 금강둘레길의 주변 마을이지만, 지난 8월 급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어 수해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군은 지역 예술인에게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을 높이고자 이 곳을 사업대상지로 정하고 사업에 꼼꼼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해 8월초 용담댐 방류로 직격적인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침



체된 지역 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했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마을 곳곳에 벽화, 조각, 회화, 미디어 아트 등의 예술작품 설치되며,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새단장됐다.

이번 설치된 미술작품들은 봉곡 마을에 내려져오는 설화와 송호마을의 대표 농산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마을과 한데 어우러져 마을의 고즈넉한 멋과 아름다운 경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기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관광명소에, 주변 마을의 이야기와 함께 섬세한 예술작품들이 조화돼 특별한 볼거리와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곽정균 대표는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예술 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 큰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며 "사업대상지가 영동군의 대표 관광지인 만큼 영동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이번 작품을 통해 영동의 아름다움이 한층 더 깊게 전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증진, 지역 공간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시행된 사업이다.

최만식기자

청주 '낯선 도시, 도착한 사람들, 어떤 이야기' 전시 운영

2021-2022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5기 입주 작가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가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2021-2022년도 15기 입주 작가들의 입주 소식을 알리는 '낯선 도시, 도착한 사람들, 어떤 이야기' 전시를 창작스튜디오 전관에서 개최한다.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15기 입주 작가 18명은 앞으로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청주에 머물면서 각자의 지향점을 향한 분주한 여정을 시작한다.

'낯선 도시, 도착한 사람들, 어떤 이야기'는 이들의 첫 행보를 알리는 전시로서, 앞으로 펼쳐질 창작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청주에서 선보이는 창작 활동의 서막을 알리는 생생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는 특정한 장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작품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된 것으로, 작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물음을 공유하고 그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입주 기간 동안 작가들 간의 다양한 소통과 장르 간 협력을 기대해 본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프리뷰전은 15기 입주 작가들의 작업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전시"라면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앞으로 네트워킹 활성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미술계의 다양한 담론 양산 및 창작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장애학생의 행복한 통합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

대전동부교육지원청, 2021학년도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 실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5월 11일부터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관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다양한 도전행동에 대하여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기초 과정과 더불어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긍정적 행동지원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사학습공동체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 과정의 연수 내용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개념, 특징 및 가치 ▲긍정적 행동지원의 계획, 실행 및 평가 ▲행동중재계획-실행-평가/기록의 일체화 ▲특수교육을 위한 긍정적 행동평가 ▲행동중재 계획의 실행 ▲실행의 실행(행동중재) ▲평가/기록의 실행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교사 상호간 학교별 학생의 부적응행동 유형과 유형에 따른 행동지원 방법을 탐색·공유하게 됨으로써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의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를 신청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에 대해 항상 고민하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장애학생의 도전행동들이 긍정적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성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통합교육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동중재 전문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장애학생에 대해 실질적 지원 강화와 연관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원격연수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현장 특수교사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2020년에 기초 과정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기초과정과 더불어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진행하게 된다.

연수 강사로는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박계신 교수와 대전중학교 특수교사이면서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D)인 김대용 교사를 위촉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 대상의 긍정적 행동지원 원리 및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부적응행동에 대한 학교,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킬



대전시 한밭도서관, 5월 북큐레이션 서비스 다채롭게 준비

일반 책 '나의 반려(伴侶) 동물과 식물 등

한밭도서관은 1일부터 시민들이 책을 선택하고, 독서의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5월 북큐레이션을 다양하게 선별하여 운영한다.

5월 일반 책 북큐레이션은 북 카페형으로 새롭게 조성된 제2자료실에 마련되며, 이번 달은 '나의 반려(伴侶)'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을 이해하고 잘 키우기 위한 도서를 소개한다.

또한,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 책'은 전국도서관 40대의 대출 인기 도서를 추천하고, 아쉽게도 독자를 찾지 못하고 서가 속에 잠들어 있는 미대출 도서 '아무도 모르는 책'을 소개한다.

이 외에 '독특한 색을 입은 책-폴색', '사서가 직접 고른 추천도서', '우리대전같은책읽기 선정도서' 코너도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 책 선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자료실 사서가 선정한 5월 어린이 책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

5월 어린이 책 북큐레이션은 '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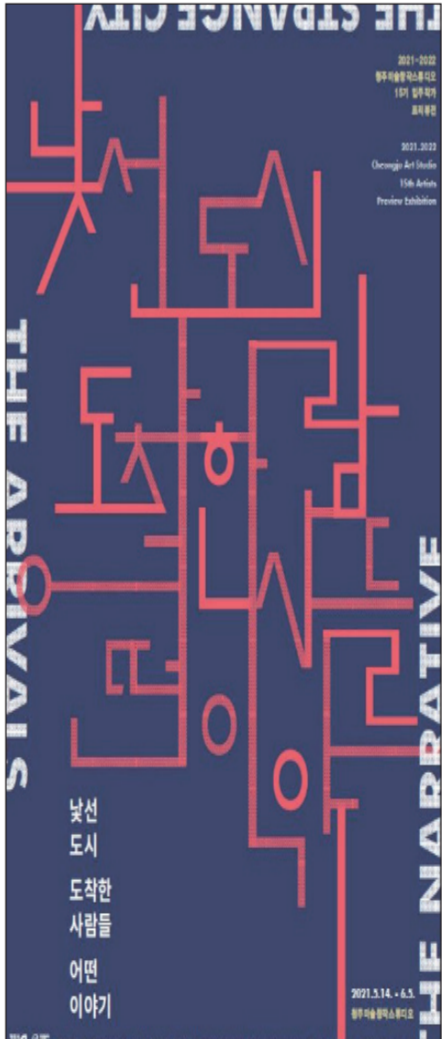
둘러싼 감정-기다림' '나를 둘러싼 자연-꽃' '5월 그림책 작가-노인경' 3개 섹션으로 운영된다.

기다림의 미학이 담긴 도서 12권과, 꽃그림과 이야기가 만난 도서 12권을 선정했다. 또한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하며 인물의 내면

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작가 '노인경'을 5월의 작가로 선정하고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

자세한 도서내용은 한밭도서관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매월 새로운 다양한 북큐레이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 산악인 엄홍길 대장 만나

의정부시는 4월 29일 산악인 엄홍길 대장 및 엄홍길휴먼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원도봉국민체육센터 및 산악체험관(엄홍길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엄홍길 대장과 홍옥선 엄홍길휴먼재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의정부시와 엄홍길 휴먼재단 간 협력 및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건립 추진 중인 원도봉 체육센터 내 산악체험관 조성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랜만에

엄홍길 대장님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쁘다”며 “네팔지역 봉사 등 휴머니즘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엄 대장님의 감동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호원동 원도봉 산입구에 원도봉국민체육센터 및 산악체험관(엄홍길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3년 6월경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이강호 남동구청장, 남동글벗학교 늦깎이 학생 격려 방문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난 28일 초등학교 인성과정으로 운영 중인 ‘남동글벗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남동글벗학교는 정규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비문해 구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인성 과정 학습 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0 장기화로 대면수업 대신 과제물 수행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는 글벗학교가 초등학교 인성 과정을 운영하는 첫해로 1단계(초등 1~2학년), 2단계(초등3~4학년), 3단계(초등 5~6학년)로 나눠 국어, 수학

을 비롯한 이론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과제물 수행, 동영상 강의)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정한 초등학교 졸업장을 지급하게 되며 중학교에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강호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배움에 매진하고 있는 늦깎이 학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남동구는 학습자들이 학업 중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히어로즈’ 64호·65호 기부자 탄생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28일 ‘구로히어로즈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

구로구는 “성우인터컴 윤재현 대표와 귀뚜라미 그룹이 구로히어로즈 회원이 되고 명예의 전당에 제64호, 제65호로 각각 명패를 달았다”고 30일 밝혔다.

‘구로히어로즈’는 2017년 창단된 구로구의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2001년 이후 개인 3,000만 원, 법인·단체 5,000만 원 이상 기부 또는 기부 약정한 경우 구로히어로즈 회원으로 가입되고 구청 본관 1층에 위치한 ‘구로히어로즈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명패가 등재된다.

성우인터컴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기부자 윤재현 대표는 현재까지 기부한 1,000만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3,0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법인 기부자 귀뚜라미 그룹은 5,000만원을 기부했

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날 행사에는 이성 구청장, 윤재현 대표와 귀뚜라미 그룹을 대표한 이명호(귀뚜라미에너지 대표이사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이성 구청장은 직접 사회공헌인증서를 수여했다.

윤재현 대표는 “구로에서 태어나 자랐고 사업도 일했다”며 “성장의 토대가 된 구로에 기여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이명호 대표이사는 “구로구에 소재한 귀뚜라미에너지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귀뚜라미 그룹이 구로히어로즈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구로히어로즈 명예의 전당’ 명패 등재가 구청 본관 1층에서 진행됐다.

이성 구청장과 기부자들은 명예의 전당에 윤 대표와 귀뚜라미 그룹이



름이 새겨진 명패를 받았다.

이성 구청장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구로의 ‘영웅’들이 새로운 후원을 만드는 빛이 된다”

며 “구청도 나눔문화 활성화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부부의 날, 큐피트로 나서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가 오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해 부부의 특별한 사연을 접수한다.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일구어 가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구는 올해 부부의 날을 맞아 비대면으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지역 부부의 특별한 사연 또는 에피소드를 신청 받아 5월 21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동대문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유덕열 구청장이 직접 사연을 읽어주고 신청곡을 들려주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사연 접수는 5월 5일까지 동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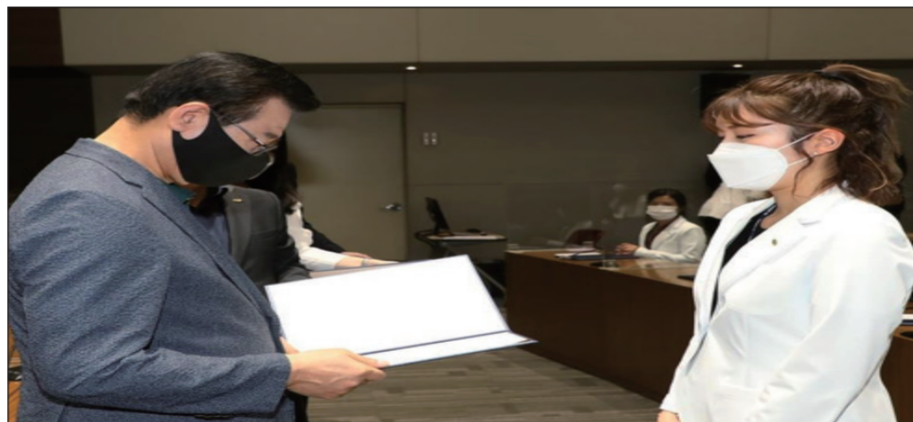
구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된 50가구에는 부부의 날 당일 가정으로 꽃이 배달된다. 아울러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자에게도 다양한 선물을 선사한다. 행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지역의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평소 쉽게 전하지 못한 배우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용산구, 코로나19 대응 유공 공무원 표창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2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유공 공무원 22명을 표창했다.

수상자는 강태환(행정지원과), 유비(자치행정과), 강달현(기획예산과), 공희영(일자리경제과), 한기백(복지정책과), 김은희(복지조사과), 이호정(문화체육과), 이목화(인재양성과), 신동오·이선화(안전재난과), 오윤서·김소현(보건행정과), 김보람·권수진·박소정·오수경·오현주·이연진·이지선·조경인·조혜원(건강관리과), 김지혜(보건의료과)다.

행정·복지·방재·간호직렬을 아울렀다.

강태환 주무관은 구 종합행정타운(녹사평대로 150) 용산아트홀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1150㎡(약 348평) 규모로 예진표 작성, 전산 확인, 예진·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으로 나뉜다. 4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 현재까지 만 75세 이상 어르신 5800명이 접종을 했다.

강달현 주무관은 구 방역대책 수립과 비상대책회의 운영을 총괄했다.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광화문집회 인근지역 방문자 전수조사, 헬러원데이 특별방역대책, 외국인 대상 특별방역대책 수립이 대표적이다.

이목화 주무관은 지역 내 학교 방역을 담당, 숙명여대 입학유학생 관리, 기숙사 등 방역소독, 구-숙대 재

난위기 공동대응 협약, 능능 대비 TF 운영, 학교·유치원 방역인력 지원 등을 맡았다. 유관 시설(학원, 독서실, 스타벅스 등 259곳)도 수시로 살폈다.

신동오·이선화 주무관은 자가격리자 관리에 힘썼다. 신 주무관은 100회가 넘는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격리 이탈자 형사 고발을 6건 진행했다. 이 주무관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230명)과 AI콜서비스 운영, 코로나19 재난문자발송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오윤서·김소현 주무관 등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은 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검체 채취,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 병원 이송, 자가격리 통보, 위생키트 제공, 백신 접종 등을 주관했다. 사실상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운 이들이다.

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달 유공자 표창 계획을 세웠다. 부서(동)별 추천자를 대상으로 구 공직심사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 구청장 표창, 부상(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전통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사실상 모든 국민과 공직자들이 코로나19 유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제24회 김해시문화상 수상자 장유수, 이봉수, 조숙자씨 선정

제24회 김해시문화상 수상자로 문화예술 부문 장유수, 환경 부문 이봉수, 봉사 부문 조숙자씨 3명 최종 선정

김해시가 제24회 김해시문화상 수상자로 문화예술 부문 장유수(60), 환경 부문 이봉수(65), 봉사 부문 조숙자(65)씨를 각각 선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김해시문화상 심의위원회 열고 5개 부문 10명의 후보자들(문화예술 4, 체육 2, 지역경제 1, 환경 2, 봉사 1)의 공적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한 후 이들 3명을 부문별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장유수씨는 김해비엔날레국제미술제 집행위원장, 김해남명문화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술가로서 1988년 한국미협 김해지부를 창립한 이래 약 200여회의 개인전 및 초대전,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으며, 김해예총지회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역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김해의 문화예술발전에 헌신해왔다는 평가다.

이봉수씨는 상동면 대감마을 개발 위원장으로서 초대 대표천 수질개선 대책위원장, ‘맑은 물 사랑 사람들’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대표천 및 낙동강 수생태계 복원활동, 은어 치어 방류 하천 살리기 활동, 친환경 농업 활동 등 다양한 환경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수생태계 복원의 공을 인정받아 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의 2005년 세계 물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민간환경운동의 모범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조숙자씨는 자타공인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활동가로서 김해시자원봉

사단체협의회회장, 자연보호연맹김해시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급식 봉사 활동, 사랑의 쌀 나눔 은행 운영 및 후원자 발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2013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총 579회, 1,919시간의 봉사활동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시상식은 김해시민의 날인 오는 5월 10일,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수여될 상패는 부채위의 예술이라 일컫는 선면작품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허성근 김해시장은 “올해는 시 승격 40주년이자 우리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는 해보다 김해시문화상에 풀리는 관심이 높았다”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 문화 발전을 견인해 오신 장유수님, 이봉수님, 조숙자님 제24회 김해시문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덧붙였다.

남궁영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장 취임식

남정면 취약계층 20가구에 취임기념 기부도 함께 실시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 사무실에서 13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심심상인 영덕캠페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도 함께 진행됐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일동은 취임식 이후 강구시장에서 지역산품(이용철탄지 ‘심심상인 영덕캠페인’)을 실시하고 취임식에서 받은 쌀 화환과 코다리, 가지미세트, 라면 등을 남정면 내 취약계층 20가구에 전달했다.

이영철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영덕군협의회 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

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시, 태풍 피해 수제민 돕기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리듬기 완화조치에 따른 ‘코로나19 퇴치! again 안심 경북!’ 캠페인을 29일 영덕시장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김기현기자



‘오상(五常)으로 배우는 리더십’강 진군, ‘이야기가 있는 인문학’특강

2021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이야기 있는 향교·서원

방송인 김병조 초청특강
五常으로 배우는 리더십

강사 방송인 김병조

일시 2021. 5. 6. (목) 오후 2시
※오후 1시 50분까지 입장

장소 강진아트홀 소공연장(2층)
※코로나19로 선착순 60명 입장

접수 강진문화원 061)433-7373
※특강 청취 신청은 5월 4일까지 강진문화원에서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문화원 후원 문화재청 전라남도

강진군이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강진아트홀에서 방송인 김병조 씨를 초청해 ‘이야기가 있는 인문학’ 명사 특강을 개최한다.

2021년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강은 강진군이 주최하고 강진문화원 주관, 문화재청이 후원한다.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오상(五常)으로 배우는 리더십이란 주제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덕목을 알아본다.

배우머리 캐릭터로 유명한 방송인 김병조 씨는 일요일 밤의 대행진, 청춘만세, 뽀빠뽀, 코미디 전망대 등의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방송인 겸 한학자로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명예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5월 4일까지 강진문화원에 사전 신청 후, 5월

6일 오후 1시 50분까지 강진아트홀 2층 소공연장에 입장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장 인원은 60명으로 제한하며, 선착순으로 입장한다. 또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한 자리 띄어 앉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강의 진행할 계획이다.

황호용 강진문화원장은 “인·의·예·지·신의 오상을 주제로 하는 이번 특강은 옛 성현의 말씀을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문화원은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을 통해 ‘이야기가 있는 인문학’ 외에도 ‘문화재활용인력 인재양성교육’, ‘향교에서 놀GO 배우GO-!’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만기자

경북도, 전통한지의 생활화 대중화 방안 모색한다.

경상북도는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민족 유산인 전통한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계승하여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 전통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 한지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한지진흥위원회는 한지 산업 진흥기반 마련과 전통한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2019년 12월 교수, 학자 등 11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우리 전통한지는 8,000년의 내구성을 가진 우수성으로 최근 유럽에서 고서적, 고미술품 복원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한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연구소에서 한국의 한지를 문화재 복원 용지로 공식 인증하기까지 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 생산감소, 영세한 제조환경, 값싼 중국 선지 등 수입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전통계승의 한계 등으로 전통 한지 산업이 점점 위축되어가는 실정이다.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은 ‘21년 문화체육관광부 한지문화산업 진흥계획에 따른 ▷한지 공공수매 확대 및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한 한지문화산업진흥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및 후계자 양성 지원을 통한 전통 한지산업 맥이 기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계 및 전문가들은 ▷한지 활성화 수요증대 방안, ▷청송한지 수요 증진 지원사업, ▷한지산업 추세 및 육성사업, ▷안동 삼베를 활용한 친환경 융합제품 개발 사례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전통한지 육성을 통한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지의 가치를 높이고, 한지를 비롯한 전통문화의 산업화 및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통 한지의 체계적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세기기자



세종시 남이웅유물 일괄 세종시 유형문화재 지정

나성동 석조여래입상·갈운리 석장승 등 2점 지정 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 ‘남이웅유물 일괄’을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하고, 나성동 석조여래입상과 갈운리 석장승 등 2점의 유형문화재를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남이웅유물 일괄은 진무공신교서와 교서관, 불운비담, 사패교지, 고신교지, 병인수로조전시 등 총 10점이다.

남이웅(1575~1648)은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 17세기의 역사적 사건과 관계가 깊은 인물로 조선 중기 대표적인 문인이다.

진무공신교서는 조선 인조 때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이 있는 32명에게 내린 교서로 1625년 제작됐다.

이 교서는 이괄의 난과 당시 인물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조선 왕실 공예품으로서 재료와 기술적 특징, 장황(粧纒)의 형태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무공신교서의 바탕이 되는 명주는 왕실에서 초상화나 교서용으로 특수 제작한 생초(生繻)를 사용

했으며, 제작 당시 교서의 수급자 명, 본문, 등위별 공신의 명단, 발급일자

와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찍어 왕실 문서로서 완전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불운비담(不允批答)은 신병을 이유로 사직·휴직·휴가를 청원하는 문서인 정사(呈辭)에 대한 답신으로, 누워서라도 정사를 보라고 할 정도로 인조가 남이웅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남이웅이 병으로 28번이나 정사(呈辭)하니 인조가 하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5점이 남아 있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불운비담은 크기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패교지는 이괄의 난 이후 공신들에게 임금이 노비 등을 내려주는 사패(賜牌)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는 자료다.

고신교지는 인조 26년 남이웅을 좌의정 및 왕세자의 교육을 맡는 세자부(世子傅)로 삼았다는 인조실록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다.

병인수로조전시는 1626년(인조 4년) 중국 사행을 수로로 다녀올 시에 거치는 육로의 노정과 지명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친구들이 써준 송별시가 수록되어 있어 남이웅의 교류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다.

이와 함께 이날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나성동 석조여래입상’은 얼굴이 크고 어깨가 좁은 비례로 볼 때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성동 석조여래입상은 일부 훼손되고 한국전쟁 당시 대포리 전투로 인한 총탄의 흔적 등이 남아 있으나, 백제시대부터 주요 교통로였던 나리제에 조성된 대형의 불상으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날 같이 지정 예고된 ‘갈운리 석장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갈운리 마을의 미륵불 2기로, 조각수법을 살펴볼

때 불상이 아닌 장승으로 판단된다.

석장승 명문 중 ‘시주별장김진기(施主別將金辰己)’란 글자가 판독되는데, 이는 승정원일기 1248책(탈초본 70책), 영조41년(1765) 10월 2일 기록에서 확인되는 ‘충청도천안군승호김진기(忠淸道天安郡陞戶金辰己)’와 동일인물로 석장승이 18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갈운리 석장승은 조성시기와 시주자의 명문이 확인되고 있는 등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됐다.

시는 다음달 1일까지 ‘나성리 석조여래입상’과 ‘갈운리 석장승’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현구 시 관광문화재과장은 “앞으로도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있거나 개인·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정·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5월은 푸르구나, 우리는 문화와 함께 자란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체부 소속 문화예술기관, 단체와 함께 어린이, 동반 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을 마련했다. 모든 공연과 전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탐험’이란 주제로 박물관 보물찾기 현장 행사, 유튜브 창작자와 함께하는 가상 어린이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5월 14일부터 24일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을 감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제46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림을 그린 후 원본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상설전 ‘우리 이제 만나요’, ‘골골이와 인형친구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신나는 골골 놀이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가 진행되는데, 딱지, 제기, 팽이 등을 직접 만들어 ‘골골 놀이 경연’에 참가하거나 추억의 오락실, 추억의 뽑기 등 여러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놀이마당’에서는 오전, 오후 각 1회, 옛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어린이극 ‘효성 깊은 호랑이’를 무대에 올린다. 국립민속박물관과 파주관에서는 개방형 수장고를 가족과 함께 둘러보는 ‘어린이날 맞이 개방형 수장고 재미있게 즐기기’ 행사를 마련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와 행사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를 위한 공연은 어떤 것이 있을까?

▲ 국립중앙극장에서는 5월 1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 2’를 만나볼 수 있다. ▲ 국립국악원 본원(서울)에서는 5월 4일과 5일 어린이날 기획공연 ‘우기부기’를, 5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국악동화 ‘강아지똥’을 선보인다. 어린이날(5. 5.) 당일, ▲ 국립민속국악원(전북 남원시)의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 국립남도국악원(전남 진도군)의 놀이극 ‘반쪽이 이야기’, ▲ 국립부산국악원(부산광역시)의 국악극 ‘우리랑 진도개비’도 관람객들을 기

다린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에서는 어린이 공연 ‘괴물 얻을 그리고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디의 영화 상영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빅도어시네마’ 행사를 준비했다. ▲ 예술의전당(서울)에서는 한국방송(KBS)교향악단의 어린이 과학콘서트 ‘행성’과 어린이를 위한 송수미, 이태연의 피아노 듀오 콘서트’가 열린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공연도 있다. ▲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서 마련한 어린이날 남사당놀이 인형극 ‘문동왕자’는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한글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공연 ‘호랑이의 꽃길’을 시작으로, 주말판 ‘책 속 요정 바비츠키(5. 8.)’, ‘판소리 다섯 바탕의 어제와 오늘(5. 9.)’, ‘세종의 노래, 가가하고 거거하(5. 15.)’, ‘말랑콩 생콩(5. 16.)’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모두 ‘띄어앉기 좌석제’로 운영되며, 예매는 기관별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립문화예술기관이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행사는 어린이와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운영할 방침이니 어린이 시절부터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문화행사에 함께해줄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여주세종문화재단, 문화예술 시민활동단과 함께 '모니터링, 공연장 안내, SNS홍보 3개 분야 모집'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2021년 문화예술 시민활동단을 모집한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시민활동단은 재단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여주, 문화상생 파트너’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모니터링, 공연장 안내, SNS홍보 3개 분야별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모니터링’은 재단이 진행하는 지원·교육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공연장 안내’는 기획공연 시 관람객의 안내 서비스를 맡게 된다. ‘SNS홍보’는 블로그·인스타 등의 매체를 통해 재단사업의 편의를 위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활동단체에 매일 소정의 활동비와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주세종문화재단 김진오 이사장은 “이번에 선발하는 문화예술 시민활동단이 시민들과 우리 재단의 문화 다리가 되길 기원한다.”며, “시민활동단의 다양한 활약은 지역문화 화사업 평가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세종문화재단과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시민활동단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는 1차 서류 적격심사 후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수기자

2021년 문화예술 시민활동단 모집

모집기간 2021. 4. 30.(금) ~ 5. 12.(수)

모집대상 문화예술 관련 교육 참여 및 활동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시민 (인근지역 시민 및 대학생 가능)

지원방법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www.yjcf.or.kr

문의전화 문화공연팀 031-881-9684

모집인원 총 15명

모집분야	모집인원	활동내용
모니터링	5명	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공연장 안내	5명	재단 기획공연 진행 시 공연장 안내 도우미
SNS홍보	5명	SNS를 통해 재단의 공연, 축제, 행사 등 홍보

※ 자세한 내용은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스마트워크·물류 등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 만든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유망·생활·사회안전 서비스 3대 분야에서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에 나선다. 개발된 서비스 표준을 토대로 KS, 단체표준 인증을 확대하고 기초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서비스 인력 확충도 병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을 발

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5년까지 유망 서비스·생활 서비스·사회안전 서비스 등 3대 분야에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 유망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표준화 전략의 첫째는 핵심 서비스표준 개발이다. 유망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먼저, 신속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물류·유통 서비스를 표준화한다.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물류 창고에서 보관·배송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 물류서비스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구체적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신선 물류 정온포장과 재사용가능 순환물류포장 표준, 언제 어디서나 개

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강정보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인공지능·서비스플랫폼·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서비스 표준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표준화한다. 방역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등 우리 의료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 절차,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 절차,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관광지장 조기회복 지원을 위한 전시·관광 서비스도 표준화한다. 여기서는 전시·컨벤션 서비스 프로세스 및

기반구조 요구사항과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기술 표준 등을 개발한다.

◆ 생활 서비스 표준화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근무와 교육 환경의 비대면화,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해 스마트워크, 교육, 웰니스(건강+행복) 관련 표준 21종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서비스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교육환경에서 연령대별 사용 안전을 안내하는 휴먼팩터 가이드라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항바이러스 제품 평가방법 표준화가 포함된다. 특히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웰니스 서비스를 표준화한다. 여기에는 자외선 차단 시험방법과 섬유제품의 항 바이러스성을 평가

하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의 정의 및 기술기준도 표준화한다.

◆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사회안전 서비스 분야에선 공공안전, 환경안전, 약자 배려 등 34종의 표준을 개발한다. 재난방송 스마트폰 청취 기준, 데이터센터 효율 측정·평가 세부 지표, 어린이·유아 돌봄 서비스 안전관리,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의 안전 요구사항 등이 개발 대상이다. 표준 활용과 인증제도 확산,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대학원 과정 시험인증 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운영을 통해 서비스 기업 수요 맞춤형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한다. 탄소중립, 제품안전 등 적용이 시

급한 국제표준을 KS표준으로 적극 도입하고 개발 중인 서비스 표준의 현장 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을 구축한다.

100개 서비스 표준 중 물류, 스마트워크 등 유망 서비스 표준을 대상으로 KS 서비스인증과 단체표준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은퇴한 표준전문가를 기업의 컨설턴트로 지정해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표준화를 이끌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정부, 공공구매시 창업기업 제품 12조원 우선 구매한다

정부가 공공구매 시 창업기업 제품을 12조원 정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분야, ICT 융복합 기술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하고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기의 초기 판로지원,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중기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애로는 여전히 일부 중기는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

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이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 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정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조사중에 있는 '독과점 품목' 이외에 '집중도 관리품목'을 새롭게 분류, 집중도 조사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한다.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1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이는 한해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8% 수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전자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 실적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우수기업은 유튜브·네이버TV·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경상북도,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 (주)큐브세븐틴-영남대 선정

3D 구강정보 인공지능 데이터 시스템 구축, 2년간 국비 20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민간지능정보서비스확산사업' 공모에 (주)큐브세븐틴-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

민간지능정보서비스 확산사업은 중소·중견 ICT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확보, 요소기술 개발 및 서비스 검증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능정보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주)큐브세븐틴-영남대 컨소시엄은 '디지털 텐트스트리 플랫폼 기반 실시간 3D 구강정보 인공지능 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하여 최종 선정, 2년간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기업은 3D스캐너를 활용해 치과병·의원으로부터 구강 영상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구강상태 예측 모델 및 진단·치료 보조 SW를 개발한다. 영남대학교 치과병원은 개발된 서비스를 연구 및 치료 과정에 시범 적용한다.

구축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정된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방하여 치과병·의원, 치기공소, 보건·의료 관련 스타트업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여 헬스케어 관련 신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다.

(주)큐브세븐틴은 2020년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프로그램 G-Star Dreamers 14기를 수료하였으며, 경북테크노파크 내에 지사와 AI 연구소를 둔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이다.

특히 (주)큐브세븐틴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천대 등 대학과 협력하여 치기공학과 전공 학생 20명을 고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데이터 활용기관을 찾기 어려운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에 지역별원과 대학을 연계하여 공모에 선정된 좋은 사례"라며 "산·학·관이 협력하여 데이터관련 신사업 발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2025년까지 81%로

지자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내진보강에 7987억 원을 투입해 6187곳(중앙 4767곳 및 지자체 1420곳)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이 25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건축물 1577곳, 도로시설물 933곳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 3075곳 중 13만 5623곳의 내진성능을 확보해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70.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철도와 전력,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행안부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추진실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내진율이 37.3%로 12만 5004곳에 머물렀으나 지난 10년간 약 33%p가 증가해 이번에는 70%를 넘어섰다.

2020년 말 기준 내진성은 확보 시설은 13만 5623곳으로 2011년 당시 대상시설 12만 5004곳을 넘어섰으나, 같은 기간 대상시설이 19만 3075곳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진율은 70.2%를 나타낸 것이다.

또 1단계 기본계획 추진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내진율이 연평균 약 1%p씩 증가했으나, 내진

정책이 강화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약 6%p씩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20년까지 목표 내진율'이 49.3%였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20.9%p를 초과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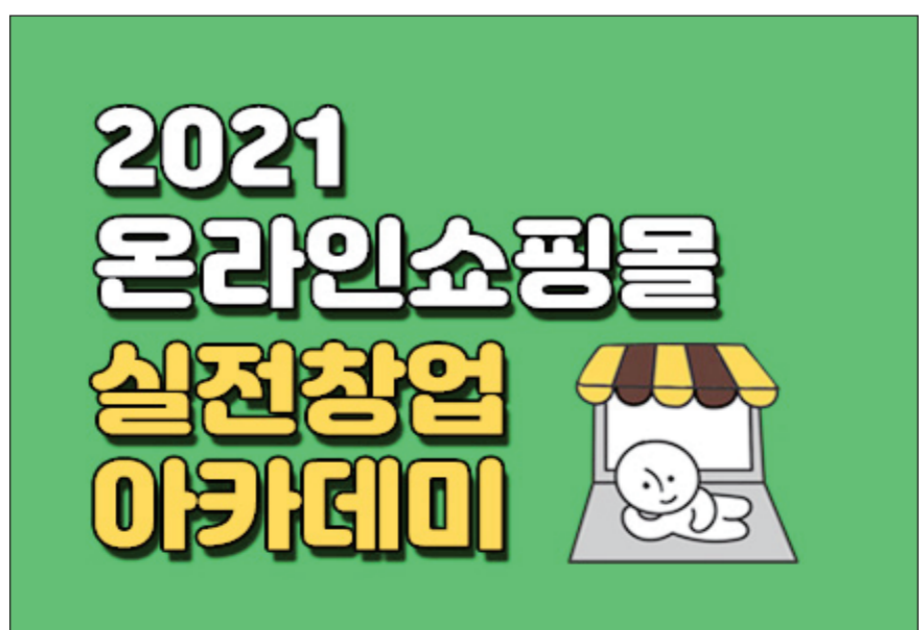
이에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난해 12월 수립한 3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기반시설과 학교시설 등을 중점보강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을 8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시설물 내진보강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내진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공공시설 내진율이 대폭 증가했다"며 "3단계 기본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은/기자



경기도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첫 디딤돌, '온라인쇼핑몰 실전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경기도,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다음달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 실전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기초 창업 이론교육 20시간, 온라인 쇼핑몰 실전 창업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교육 수료생은 경기광역새일 디딤돌 취·창업 동아리 및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온라인쇼핑몰 여성 예비창업자 및 6개월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황속에서도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예비창업자의 교육 수요가 높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사는 "재단은 '꿈마루'를 통해 도내 여성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 컨설팅, 상담 등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다"면서 "뛰어난 창업인들의 성공사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만들어 창업 성공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신청은 꿈날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새일팀 또는 카카오프러스친구 경기광역새일센터 채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근수/기자

울산시, 한시 생계지원 50만 원 지원

울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 혹은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봉사자 생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단,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임·어업인 지원으로 30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은 차액분 20만 원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은 받는 가구도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5월 10일부터 5월 28일 22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가 휴대본인인증 후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연도 끝 자리에 따라 출력제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세대주, 가구원 또는 대리인 등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세대 당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25일 이후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구·군, 울산시 해운이 콜센터 또는 코로나바 이러스상담중 19 중앙사고수습본부 ARS로 전화하면 된다.

울산시는 현장접수에 앞서 5월 13일 별도 접수창구 설치 및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현황 등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읍면동을 사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한시 생계지원을 신속히 지급하여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구·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향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것이며,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CCTV단속과 함께 현장 단속직원을 통해서

도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사고 근절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한 시민신고제 적용 구간(초등학교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동근 마포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생명 보호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금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금천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3개 구간으로, 구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도로 4만원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홍보현수막, 포스터, 구 홈페이지, 소식지, CCTV전광판 등을 통해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김창용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데 주민분들께서 앞장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구미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실시

구미시는 4월29일 14시 고아음 문성리일원에서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이 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관(民官)이 합동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실시된 캠페인에서는 도시재생과, 고아음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등에 무단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자진정비토록 주민홍보를 실시했다.

최근 구미시는 아파트 분양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수막, 벽보 등과 같은 불법광고물이 급속히 증가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통행, 안전사고 유발에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제102회 전국체전 준비와 맞물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자진철거제도, 과태료부과 및 꾸준한 민·관합동 캠페인 등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쓰고 있다.

이창수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관(官)의 행정작용 뿐만 아니라 민(民)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다."라며 금번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궁영기/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 우리 손으로!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학부모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구는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인 일산서구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김희정)와 함께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난 29일 현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등교시간에 맞춰 일산서구 관내 24개 초등학교를 순회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참여 인원도 최소화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한다.

캠페인에 참석한 녹색어머니연합회 한 회원은 "평소 학교 앞 등곳길

교통질서유지를 하고 있었으나 이번처럼 구청에서 함께 참여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즉시 단속 대상으로 일부 시민들이 일반도로(10분 유예)처럼 무심코 주정차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에 의해 부과되는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5월 11일부터는 과태료도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삼척시,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 예방대책 강화

삼척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봄철 산나물 채취객 및 등산객의 산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다음달 2일 삼척시와 삼척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입산자 실화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입산통제구역 출입과 산주의 동의가 없는 산나물 채취가 불법 행위임을 담은 현수막을 산발 취약지와 관광지 40개소에 게시하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5월 15일까지를 중점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드론단속반을 편성해 드론

8대(시 5대, 민간 3대)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넓은 입산통제구역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소각행위를 적발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산불종사원 관할구역 이동 순찰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무단 입산자와 불법 산나물 채취자 등을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로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입산자 실화 예방 캠페인을 통해 소중한 우리 시의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삼척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4.28일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나물 산행, 입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산행 등 단속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단속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라며, 산불발생에 주요원인이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이므로 소중한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홍성군, 포장·배달 전문 음식점 합동단속 실시

홍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포장·배달음식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및 위생관리에 대한 합동단속을 오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군 특사경 및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관내 포장·배달 음식 전문점(수산물 포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및 타 법령 등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전자매체(배달앱)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코로나19의 유행과 매체의 발달에 따라 포장·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양양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단속 실시

5월7일까지 관내 건설공사장, 토석채취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

양양군이 봄철 건조기를 맞아 대기질 악화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군은 봄철 각종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5월 7일까지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토석채취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관내 사업장 7개소이다.

특히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최소 규모 10배 이상인 특별관리 공사장과 반복민원 발생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살수시설 등 배출저감 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 여부, 적재물 방진덮개 설치유형 여부, 세류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반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건설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대형 사업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최재은/기자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서인국, 초월적 존재 '멸망' 본업 현장 포착!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서인국이 초월적 존재 '멸망'으로서 본업을 행하는 스틸이 공개됐다.

오는 5월 10일(월) 밤 9시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이하 '멸망')(연출 권영일/극본 임매아리/기획&제작 스튜디오앤뉴, 스튜디오드래곤)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서인국 분)과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계약을 한 인간 '동경'(박보영 분)의 아슬아슬한 목숨달보 판타지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로 섬세한 필력을 인정받은 임매아리 작가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로 파스한 웃음을 선사한 권영일 감독의 의기투합으로 기대를 모은다.

극중 서인국은 자독한 운명에 끼여든 뜻밖의 삶에 자신의 연민과 사랑을 바치게 된 특별한 존재 '멸망'으로 분한다. 멸망은 인간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가족한 운명 속에 모든 죽음을

관장하며 존재한다. 이에 서인국이 '멸망'으로 분해 보여줄 치명적인 매력과 로맨스에 관심이 치솟고 있다.

이 가운데 30일(금), 멸망의 본업 현장이 담긴 스틸이 공개돼 관심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스틸 속 멸망은 의사의 하얀 가운을 걸친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훈훈한 미소를 띤 표정과 달리 의미심장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후고 멸망은 미소를 거둔 채 블랙 아우라를 물씬 풍겨 이목을 끈다. 피범벅이 된 환자(홍인 분)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모습과, 그런 멸망의 속삭임에 두 눈을 번쩍 뜬 환자의 투박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더욱이 환자의 표정에는 극강의 공포심이 서려 있어 긴장감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환자를 쳐다보는 멸망의 눈빛에서 분노와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해 궁금증을 치솟게 한다. 이에 스틸만으로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멸망의 본업에 관심이 증폭된다.



tvN '멸망' 제작진은 "멸망은 인간도 신도 아닌, 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다. 서인국이 멸망이 되어 선보일 다채로운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간 떨어지는 동거' 장기용-이혜리-강한나-김도완-배인혁, 숫자로 본 '캐릭터 포스터' 공개

tvN 새 수목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 장기용, 이혜리, 강한나, 김도완, 배인혁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5월 26일(수) 첫 방송 예정인 '간 떨어지는 동거'(연출 남성우/극본 백선우, 최보림/제작 스튜디오드래곤, JTBC 스튜디오)는 999살 구미호 여르신 신우여와 콜네나는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이 구슬로 인해 얼떨결에 한집살이를 하며 펼치는 비인간적 로맨틱 코미디.평점 9.97점의 동명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 '끝내 인턴'에서 재기 발랄한 연출력을 뽐낸 남성우 감독과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백선우, 최보림 작가가 뭉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장기용(신우여 역), 이혜리(이담 역), 강한나(양혜선 역), 김도완(도재진 역), 배인혁(계선우 역)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특히 포스터에는 각 캐릭터의 특징이 숫자와 해시태그로 표현되어 흥미를 유발한다.

먼저 신우여는 해사한 미소가 설렘을 유발함과 동시에 헤드라인에 '999살'로 그의 나이가 표시되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어 '#세상스윗구미호, #역사의 산증인, #엄근진(엄격-근엄-진지의 줄임말), #으르미(어른미)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신우여의 성격을 파악하게 한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지만 이담에게만큼은 다정다감한 여르신의 매력에 여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99년생' 이담은 생기 넘치는 매력으로 눈길을 끈다. 턱을 가며 괴고 옆을 흘릴 바라보는 여유 넘치는 표정에서 이담의 당찬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에 더해 '#요즘 인간, #할말은 하는, #99년생이 온다 #인생은셀프'라는 해시태그에서 구미호 앞에

서도 거침 없는 20대의 당찬 패기를 예고한다.

양혜선은 올 블랙 의상으로 도도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특히 '360도'라는 숫자가 이목을 끈다. 완전히 변화했다는 의미의 '180도 바뀐'이 아닌 '360도 바뀐'이라는 유행어는 해시태그가 양혜선의 언변의 외모와는 달리 엉뚱발랄한 그녀의 반전매력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나아가 '#전직구미호, #인간5년차'라는 해시태그에서 과거에는 구미호였지만, 신우여보다 먼저 인간이 됨을 드러내 흥미를 유발한다.

익살스런 미소의 도재진은 '12번째'라는 키워드로 이목을 사로잡는다. 도재진은 사랑에 빠지면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주는 순정남이지만 이별을 12번 경험한 후 13번째 양혜선과 만나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발전될지 관심을 높인다. 또한, '#I WAS CAR, #순정호구남, #이상적남사친'이라고 해시태그 때 그가 보여줄 매력에 기대를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계선우는 시크한 카리스마가 돋보인다. 특히 '23.1만'이라는 숫자는 계선우의 SNS 팔로워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계선우의 폭발적인 인기를 예상케 하며 캠퍼스를 달굴 그의 매력에 관심을 높인다. 더욱이 '#SNS스타, #서과대 의자왕, #범피남자, #계과천선'이라고 설명돼 그의 캐릭터에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이처럼 5인 5색의 매력적인 캐릭터로 시청자를 찾아올 장기용, 이혜리, 강한나, 김도완, 배인혁의 모습이 벌써부터 본 방송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린다.

한편, tvN 새 수목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는 '마우스' 후속으로 5월 26일(수)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현우주/기자

'오! 주인님' 이민기 "소원이야, 헤어져줘" 나나에 이별선언 '멤짱'

'오! 주인님' 이민기가 나나에게 이별을 선언했다.

4월 29일 방송된 MBC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극본 조진국/연출 오다영/제작 넘버스리퍼처스) 12회에서는 한비수(이민기 분)와 오주인(나나 분)의 사랑이 더 애뜻하고 깊어졌다. 그러나 가혹한 운명은 이들을 그대로 행복하게 두지 않았다. 결국 한비수는 사랑하는 오주인을 위해, 자신이 사라진 뒤 홀로 남은 오주인을 위해 오주인에게 차갑게 이별을 고하고 말았다.

이날 오주인은 한비수에게 혹시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었다. 당황한 한비수는 아닌 척 애써 부정했다. 그제야 안심한 오주인은 한비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 키웠다. 두 사람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 한비수를 향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오주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정유진에게 선을 그었다. 정유진은 기다림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한비수와 오주인의 알콩달콩 로맨스가 시청자의 연애세포를 자극했다.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보고 싶어 하고, 본의 아니게 다른 이성과 함께 있을 때는 상대가 질투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막상 질투해주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등, 달달한 연애가 귀여운 설렘을 유발한 것이다.

하지만 오주인과 사랑이 커질수록 한비수의 마음은 아파왔다. 자신이 사라진 후 홀로 남은 오주인이 걱정된다. 그러던 중 한비수 엄마 강해진(이휘향 분)이 쓰러졌다. 한비수는 강해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지켜주고 싶었다. 이에 강해진을 설득해 항암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한비수는 의사 정삼은(배해선 분)에게서, 그녀가 남

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후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들었다.

앞서 한비수는 오주인 앞에서 또 한번 사라졌다. 당시 오주인은 한비수가 없는 줄 알고 배광자(이현정 분)와 통화하며 "나 작가님 없으면 못살 것 같아"라는 진심을 털어냈다. 이 말이 한비수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결국 한비수는 오주인에게 "소원이야, 헤어져줘"라고 말해버렸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오주인. 차가운 눈빛으로 오주인에게 마음에도 없는 비수를 쏟아낸 한비수. 슬픈 두 사람의 모습이 교차되며 '오! 주인님' 12회가 끝났다.

'오! 주인님' 후반부를 달리고 있다. 극 초반 티격태격 동거 로맨스를 그린 이 드라마는 후반부에 접어들며 남녀의 애뜻한 사랑, 가족의 애뜻한 사랑을 깊이 있게 그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죽음'이라는 장치를 통해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조명한다는 것이다. 이민기, 나나를 주축으로 '오! 주인님' 배우들은 이 깊이 있는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비수와 오주인의 사랑은 과연 꽃길의 길 수 있을까. 두 주인공의 사랑을 응원하게 되는 MBC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은 매주 수, 목요일 밤 9시 20분 방송된다. '오! 주인님'은 IQIYI International에서 방송과 동시에 전세계 서비스하며, 각 회 별로 방송 직후 볼 수 있다. 해외 유저는 IQ.com을 접속하거나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IQIYI International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전순희/기자



'나 혼자 산다' 광도원, 승마 도전에 명품 배우다운 프로美 폭발!

'나 혼자 산다' 8주년 맞이 '어머나 반갑습니다' 3탄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온 배우 광도원이 승마에 도전해 명품 배우 다운 프로美를 폭발시킨다. 그의 승마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말과 교감을 시도하며 '팍스윗'으로 변신한 모습이 포착돼 기대를 모은다.

오늘(30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기획 안수영 / 연출 허항 김지우)에서는 새로운 취미인 승마에 도전한 광도원의 승마 실력을 공개한다.

제주에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광도원은 새로운 취미 생활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말 교육센터에서 승마를 배우기 시작한 것. 승마에 앞서 마방을 방문한 광도원은 인형 비주얼을 자랑하는 망아지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망아지의 귀여움에 폭 빠진 광도원은 교감을 시도하며 '팍스윗'의 면모를 보여주는가 하면 직접 사자성이 이름까지 지어줬다는 전언이다.

이러 말을 끌고 승마 연습장 안으로 들어선 광도원이 한 번에 말 위에 올라타는 등 '브래드 피트' 급 카리스마를 보여줘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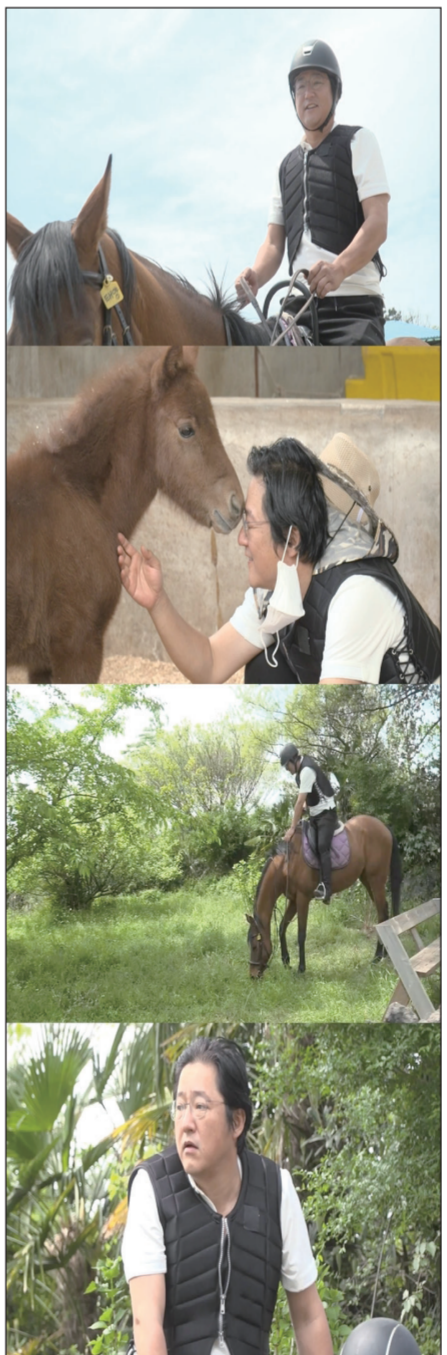
광도원은 승마 연습을 마친 후 말을 탄 채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건초보다 생물을 좋아하는 말들에게 집 앞 마당의 풀을 먹이는 광도원은 먹성 좋은 천연 제조 현장에 흡족한 미소를 보였다.

그러나 평화로운 친환경 제조 작업도 잠시 광도원은 뜻밖의 봉변(?)에 동공 지진을 일으켰다고 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승마에 도전한 광도원의 승마 실력과 그에게 벌어진 뜻밖의 봉변(?)은 오늘(30일) 밤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스타들의 다채로운 무지개 라이프를 보여주는 싱글 라이프 트렌드 리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만식/기자



'김백흠' 차청화, "중학생 때 비밀리에 유재석 팬 카페 활동" 유재석 원조 덕후 고백



KBS 2TV '김백흠'에 출연한 배우 차청화가 유재석의 원조 덕후임을 고백했다.

청춘들의 서울살이를 응원하는 명랑힐링쇼 KBS 2TV '김백흠'(기획 김광수/연출 박민정) 5회가 오는 5월 1일(토)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가운데 다섯 번째 집 돌아온 게스트로 밍고 보는 대세 신스타 차청화와 그의 20년지기 절친인 개그맨 심진화가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차청화-심진화가 배우의 꿈을 품고 무대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던 '대학교'와 차청화의 첫 자취방인 '동선동 원룸'을 찾아갈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연기학원에서 만나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절친 차청화-심진화는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MC 유재석을 둘러싸고 상반된 길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차청화는 "방송에서 이런 말 처를 하는데 중학교 때 유재석 선배님 팬 카페에 가입했었다. '스타 음성사서함'으로 목소리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했다"며 원조 유재석 덕후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친구를 몰래 활동했다"고 고백하며 은밀히 간직할 수 밖에 없던 소녀

팬심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유재석은 "그 당시 내 팬이라면 몇몇하게 드러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철저한 자기객관화로 웃음을 더했다.

반면 심진화는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유재석 선배님을 보내줘야 할 때"라며 탈퇴를 선언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과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재석의 칭찬을 들은 이후 유라인 입성의 희망을 가졌으나 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선배님의 관심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어장관리 느낌이다. 그 어장에서 17년을 살았던 것 같다"며 울분을 토해 폭소를 유발했다. 그도 잠시 심진화는 "지금은 어장에서 나와 다른 선을 닦았다. 백종원 선"이라며 백스님 찬양가를 불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

이처럼 잘된 입담을 뽐내는 '20년지기 절친' 차청화-심진화의 활약은 '김백흠'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BS 2TV '김백흠' 5회는 오는 5월 1일(토)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김학범 감독 "6월 소집 훈련이 매우 중요해"

남자 올림픽대표팀의 김학범 감독이 28일 파주NFC 대강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0 도쿄 올림픽 준비 상황과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한국은 21일 진행된 조추첨식 결과에 따라 뉴질랜드, 온두라스, 루마니아와 함께 B조에 속했다. 김학범 감독은 조 편성과 함께 대회도 시작될 것이라며 올림픽 메달권 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학범 감독은 6월 진행 예정인 소집 훈련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열린 AFC U-23 챔피언십 이후 정예 멤버가 모두 모인 소집 훈련을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갖가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김학범 감독은 정부와 KFA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하며 "다 함께 머리를 맞대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범 감독 기자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AFC U-23 챔피언십 이후 선수 전부를 소집한 적이 없다. 1년 3개월 동안 선수들을 완전체로 못 모은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소집 훈련이 굉장히 소중한 기회다.

[명단에 대해]
알다시피 50명의 선수 명단이 대한체육회에 넘어갔다. U-24 선수 39명과 와일드카드 11명이다. 와일드카드 11명은 골키퍼를 포함해 모든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 손흥민도 있다.

아직 최종 명단에 대해서는 나 또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6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 21일 조 편성이 완료된 후 코칭스태프들이 상대 팀들의 경기를 분석하고 있다. 이후에 와일드카드를 포함한 최종 명단을 결정해야 한다. 50명의 모든 선수가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훈련에서 선수들을 다시 파악한 다음 와일드카드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몇 명은 내 마음속에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상황에 따라 바뀔 것이다. 와일드카드 후보 11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본인의 의지와 구단의 생각, 차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50명의 명단은 두 달 전 IOC에 제출한 70여 명 명단에서 주된 것이다. 때문에 두 달 전 마지막까지 체크했던 선수는 명단에 들어갔지만 그 뒤에 체크한 선수는 못 들어갔다.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6월 훈련에는



50명 중 26명 내외로 압축해 소집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가 최종 명단 18명이다.

[조 편성에 대해]
우리와 온두라스, 루마니아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루마니아는 프랑스를 탈락시킬 뻔 한 팀이다.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를 이겼고, 프랑스랑 비겼다. 온두라스 경우에는 미국을 2-1로 이겼다. 멕시코와는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로 졌다. 만약 안치 않은 팀이다. 루마니아, 온두라스, 우리, 세 팀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때문에 우리는 상대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서 대회를 치러나갈 계획이다. 메달을 노리기 위해서는 조별리그 통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 편성 발표 때 산에 간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를 가다듬는다는 뜻에서였다.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조 편성 전부터 깔궂다고 생각한 팀들과 만났다. 오히려 프랑스 같은 강팀이랑 붙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다들 쉬운 조가 걸렸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그렇다. 마음속으로는 프랑스, 멕시코와 붙고 싶었는데 반대로 됐다. 그런데 여차피 토너먼트에 가면 프랑스, 멕시코 등과 붙게 된다.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라는 뜻인 것 같다.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중요한 것은 8강전이다. 옆 조에서 누구와 만나게 되는 잘 대비해야 한다.

[6월 소집 훈련에 대해]
6월 소집 훈련이 매우 중요하단데 여러 난관이 있다. 첫 번째는 방역 지침이다. 문제부와 협회가 소통하고 있는데 쉽게 풀리지 않는다. 평가전을 치러야 하는데 2주 격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팀이 없다. 남자 A대표팀 한일전 사례나 여자 올림픽 대표팀 플레이로프 사례를 보면 특정 지역에서 동선을 통제하면서 문제없이 진행됐다. 평가전이 라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가 올림픽 대표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 부분이 꼭 해결됐으면 한다.

두 번째는 A매치 기간과 겹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A대표팀이 선수를 차출하면 다 오케이 했다. 이번에는 양보를 부탁한다. 월드컵 2차 예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다. 동 큰 양보를 부탁한다. 간절하게 부탁한다.

1년 3개월 동안 완전체로 훈련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완전체를 모으고 싶은 바람이 있다. A대표팀과 조율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벤투 감독과 잘 협의하겠다. A대표팀에 대해 불가한 선수를 차출하는 것이라면 개이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A대표팀에 차출되더라도 교체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최종 엔트리는 18명인데 매우 작은 규모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만큼, 6월 훈련을 위해 벤투 감독에게 정중히 요청할 생각이다. ACL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다. ACL 참가 구단 감독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아직 모르겠다. 고민이 많이 된다. 장애물이 너무나 많다.

평가전 상대는 강한 팀으로 요청했다. 경기도 가능한 많이 할 수 있게 이야기 중이다. 강한 팀과 경기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15 일간의 훈련 동안 얼마나 마지막 담금질을 잘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일본에 갔다 오는 것인데 현 상황 상 쉽지 않다. 현지에 가게 되면 선수들이 스스로 느껴 준

비하게 되는 것이 있다.

[선수 선발에 대해]
병역 문제는 선수 선발과 관계가 없다. 성적을 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면 누구든 뽑을 수 있다. 또한 A대표팀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무조건 뽑는 것은 아니다. A대표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팀에 맞지 않으면 뽑을 생각이 없다. 사실 A대표팀에 드나드는 선수들이 최근 기량이 떨어져있다. 기량이 떨어진 상대라면 가져 없이 뽑지 않을 생각이다.

이름이 있는(유명한) 선수도 마찬가지다. 개인 대 개인으로는 올림픽에서 절대 성적을 못 낸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 우리보다 개인 기량이 못한 선수가 어디 있겠나? 우리는 팀으로 상대해야 한다.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것들이 앞서면 안 된다. 단지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팀을 만드는 기조다. 우리 팀 주축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이전에 연맹별 대표팀에서 떨어졌던 선수들이다. 지금은 다르다. 팀이 살면 개인도 산다. 개인이 살려 하면 팀은 죽게 돼있다.

[코로나19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 중이다. 최종 18명에 예비로 4명을 더 데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4명을 데려가는 것이 좋은지, 4명이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을지, 여러 요소를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득도 있고 실도 있을 것이다. 1년 전에는 선수들 상태가 괜찮았다. 챔피언십이 끝나고 상승세를 탔다. 그런데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생겼다. 그런 부분은 장점이다. 새로운 얼굴이 나오는 것은 팀에 도움이 된다. '나는 무조건 간다'는 생각이 없어졌다. 경쟁체제가 잘 이뤄져있다.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집하면 결과가 어떻든 모든 선수를 경기에 투입시킨다. 선수들이 가진 장단점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축구는 도전이다. 메달 색깔이 뭐든지 하나는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다. 조 편성이 되면서 경기는 시작됐다. 난관이 많이 있고, 현지에 가서도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하나씩 차분하게 격파해나가야 한다. 피해갈 수 없다.

여주시청 롤러팀, 제40회 회장배대회서 5개 메달 기염 토해



여주시청 롤러팀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제천롤러경기장에서 열린 제40회 회장배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학 롤러스피드대회서 금 4, 동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 롤러 간판' 박형상이 500m 42초 474로 1위에 올랐고, 이대환이 포인트 5,000m에서 정상에 올랐다.

특히 추월 2,000m 단체전에서 남녀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박형상, 이성건, 김연주, 이대환이 남자 단체전에서 2분 57.999초를, 서소희, 이혜

원, 심수정, 문지윤이 여자 단체전에서 2분 57.999초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이혜원이 5,000m 종목에서 포인트 6점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열리는 첫 전국대회에서 선수들의 노력이 빛을 발해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면서 "여주시 소속의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크리스 FnC 제43회 KLPGA 챔피언십 1R] 김지영, 메이저 대회 첫날 9언더파 단독 선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 첫날 김지영(김지영2) 선수가 버디쇼를 펼치며 단독 선두에 올랐다.

김지영은 전남 영암 사우스링스 영암 CC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10개, 보기 1개로 9언더파를 몰아쳤다.

8언더파 단독 2위인 김우정에 1타 앞서 순위표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데뷔 첫 승을 거뒀고 지난해 BC카드-한경 레이디스

컵에서 2승째를 기록했던 김지영은 KLPGA투어 통산 3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 박현경은 3언더파 공동 20위로 출발했고, 올 시즌 개막전과 두 번째 대회에서 연속으로 준우승한 장하나의 첫날 4언더파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개막전 우승자 이소미는 1언더파, 지난주 대회 우승자 박민지는 1오버파를 기록했다.

최근 3년 연속 시즌 대상을 수상한 최혜진은 첫날 이븐파에 그쳤다.

정동희/기자



[KLPGA2021 톨비스트-휘닉스CC드림투어3차전] 황예나, 역전 드라마쓰며 드림투어5승 달성!

4월 28일,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휘닉스 컨트리클럽(파72/6,332야드)의 마운틴(OUT), 레이크(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1 톨비스트-휘닉스 CC 드림투어 3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8백만 원)에서 황예나(28)가 역전승을 통해 드림투어 다섯 번째 우승을 알렸다.

첫날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으며 공동 9위로 2라운드에 나선 황예나는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추가해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69-68)를 만들어 공동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최종라운드를 맞이한 황예나는 2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한 출발을 했다. 이후 6번홀과 7번홀에서 연속으로 버디를 기록하며 다시 격차를 벌린 황예나는 11번 홀에서 티볼 보기를 범하며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황예나는 경쟁자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이내 다음 홀에서 버디를 잡아냈고 16번 홀에서 버디 한 개를 더 추가한 끝에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69-68-71)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이뤘다.

이번 우승을 통해 드림투어 상금 순위 2위로 올라선 황예나는 "부상과 드라이버 임스 때문에 우승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



가 만들어져서 기분이 정말 좋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얻어간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황예나는 "힘든 시기에 선수들을 위해 소중한 대회를 개최해주신 톨비스트와 휘닉스 컨트리클럽 그리고 KLPGA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매니지먼트사 WPS 박충일 대표님과 임직원분들과 후원해주시는 타이틀리스트와 핑골프 그리고 건강을 챙겨 주시는 팀골로리어스 선생님들까지 모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늘 함께 대회장에 동행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따듯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2011년 KLPGA에 입회한 황예나는 2014년 드림투어 16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이후 정규투어와 드림투어를 오가며 내공을 쌓은 황예나는 2019년 드림투어에서 3승을 기록해 '드림투어 상금왕' 타이틀과 2020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을 얻어냈다. 하지만 다음 시즌 정규투어에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황예나는 상금순위 79위를 기록해 시드권을 잃었고, 올해 드림투어 주 무대로 삼게 됐다.

지난 시즌에 대해 황예나는 "작년 상반기는 잘 보냈지만, 하반기에 부상을 겪으면서 무너졌다.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한 해였다. 오랜 시간 골프를 치다 보니 아픈 곳들이 많아

졌고, 지난 겨울 동안 갈비뼈 부상을 포함한 잔병 치료와 멘탈 코칭을 통해 새 시즌을 준비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오늘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시즌 초반에 우승이라는 선물을 받은 황예나는 "뜻밖의 우승을 하게 되어 이번 시즌에는 큰 욕심이 없다. 먼저, 드라이버 임스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 다음은 부상 없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다. 그 두 개를 달성하게 된다면 좋은 성적과 정규투어 시드권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다."라고 웃으며 목표를 전했다.

이번에 이제영(20,도희에드)과 권서연(20,우리금융그룹)이 7언더파 209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이어 박단유(26), 신의경(23), 이수진(325) 그리고 김가영(19)이 5언더파 211타를 기록해 공동 4위 그룹을 형성했다. 지난 1차전 준우승에 이어 2차전에서 우승을 기록한 김가운(28,넥시스)은 이번 차전에서 아쉽게 컷 통과를 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상금 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톨비스트와 휘닉스 컨트리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최종라운드는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5월 5일 19시 30분부터 녹화 중계된다.

전소희/기자

체육인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는 진로지원센터 이전 개소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분야 일자리 관련 정보와 개인맞춤형 교육,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를 4월 29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이전해 개소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는 개소식에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김정배 문제부 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은퇴 선수 등 체육계 인사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진로지원센터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진로지원센터'는 2017년 7월 26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9층에서 처음 문을 열어 운영해왔다. 올해부터 접근성이 뛰어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으로 옮겨 휴게실(라운지), 셀프바, 강의/공부실, 스튜디오 등, 진로 전환 희망 선수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학생 선수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선수까지 누구나 진로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문상담사 10명이 전·현직 선수들을 위해 ▲ 진로상담(1:1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설계, 역량 개발 프로그램 상담 등) ▲ 진로역량교육(스포츠

츠 전문 과정(스포츠지도사, 스포츠영상분석사과정 등), 직업 기초(컴퓨터, 어학 등), 기타(심리, 직업탐색, 취업과정 대비, 현직자 특강 등), ▲ 선수 희망 직무별 소그룹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수들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는 '진로인식 개선 서비스'를, ▲ 현역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선수에게는 '진로 전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원화해 성장 과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직 어린 학생 선수들도 현역 생활 이후의 삶에 대해 진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수 또는 학부모는 대한체육회 이(e)진로지원센터를 통해 시간이나 거리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상담과 교육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차관은 "여러 선수부터 성인 선수까지 선수 개인의 성장 과정별 맞춤형으로 진로를 지원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두려움 없이 사회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스포츠기업인증제, 창업지원센터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등의 정책으로 양질의 체육계 일자리 2만 개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대구 진천동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선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서 대단지 프리미엄을 갖춘 역세권 아파트가 4월달에 조합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진천 그랜드원’은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210-3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47층에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260실 총 125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월배역 그랜드원 지역조합아파트는 2017년 주택법 개정애 이어 작년 7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조합 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해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약통장 없이 원하는 동호수

를 선택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내·외부 설계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관상형 구조를 적용,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각종 옵션도 혜택도 우수하다. 또 탁 트인 도심 뷰를 누릴 수 있는 최고 47층 높이의 아파트로 계획돼 있어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탄생될 예정이다.

‘월배역 그랜드원’은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CGV 등을 도보로 이용

할 수 있다. 대구시청 신청사(예정)도 인근에 위치하며, 성서산업단지도 가까워 산업단지 및 관련 업종 종사자의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

교육환경도 탁월하다. 단지 인근에 월배유치원과 진월초·월배초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월서중과 월배중도 도보거리에 있으며 대서중과 대진고, 영남고, 상원고, 달서공고, 경북기계공고 등도 밀집해 있어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우수한 쾌속 교통망도 눈길을 끈다. 단지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월배역이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다. 대구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수월해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성을 보장하고, 단지 주변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버스노선도 많아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이 밖에 월배로와 앞산순환로 등을 통해 대구 각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남대구IC나 유천IC를 이용하면 중부내륙고속지선으로 손쉽게 진입할 수도 있다.

다양한 자연 공간을 갖춘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학산은 산책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산책로 전체를 돌면 2km 정도이고

주민 체력 단련장으로 인기가 있으며 야간산책도 가능하다. 또 수 많은 화초·수목이 어우러져 있는 대구수목원이 모두 가깝다.

또 해발 660m의 앞산은 좌우로 산성산(653m), 대덕산(546m)을 거느리며 대구 시민들의 여가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산책로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구앞산공원을 시작으로 앞산과 연계된 산책로와 대구앞산공원에서 산성산, 대덕산과 연계된 산책로가 있어 자연환경을 즐기기에 좋다.

이외에도 대전동 선사유적지와 월광수변공원 등도 근거리애 있

어 에코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달서구 진천동의 랜드마크 대단지로,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주거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달서구를 대표할 아파트로 조성해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최고의 아파트를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배역 그랜드원 홍보관은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352-5번지에 위치하며, 홍보관은 4월 중에 오픈 예정에 있다.

박류석/대기자



대구 월배역 그랜드원